

치악산의 역사와 문화자원

2005년

**국립공원관리공단
치 악 산 사 무 소**

목 차

I. 치악산의 유래 및 지리적 환경	1
1. 치악산의 유래 / 2. 치악산의 지리적 환경	
II. 치악산 주변 지역의 명칭 및 유래	5
1. 소초면 학곡리 / 2. 소초면 홍양리(황골) / 3. 원주시 행구동 /	
4. 판부면 금대리 / 5. 신림면 성남리 / 6. 강림면 강림리 /	
7. 강림면 부곡리	
III. 사찰	23
1. 사찰의 건축물 및 조형물 2. 구룡사 / 3. 상월사 / 4. 입석사 /	
5. 보문사 / 6. 영원사 / 7. 연암사 / 8. 국형사 / 9. 석경사	
IV. 산성	54
1. 문헌에 나타난 치악산 내 산성간의 관계 / 2. 영원산성 /	
3. 해미산성 / 4. 금두산성	
V. 역사 유물·유적	65
1. 황장금표 / 2. 태종대 / 3. 노고소 / 4. 변암 / 5. 국형사 동약단	
참고문헌	71

I. 치악산의 유래 및 지리적 환경

The Origin & Geographical properties of Mt. Chiak

1. 치악산의 유래..... 2
치악산의 이름 유래(2) / 구렁이의 배경(3) / 비로봉 미륵불탑 유래(3)
2. 치악산의 지리적 환경..... 4

1. 치악산의 유래

치악산의 이름 유래



◀ 치악산 주봉인 시루봉(비로봉) 및 미륵불탑, 해발 1288m

경상도 의성의 한 나그네가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떠났다. 치악산 기슭 오솔길을 걸어가는 데 숲 속에서 꿩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주위를 둘러보니 잔솔밭 아래 커다란 비단 구렁이가 꿩을 잡아먹으려고 또아리를 틀고 있었다. 나그네는 구렁이에게 잡아먹히려는 꿩을 붙잡히 여겨 활을 당겨 구렁이를 쏘아 죽였고, 그 길을 재촉하여 가는데 해가 저물었다. 깊은 산중에서 해가 저물어 부득이 인가를 찾게 되었으며, 어두워서 찾아낸 집은 어느 이름 모를 절간이었다. 문을 들어서면서 주인을 찾으니 이상하게도 소복을 입은 여인이 나타났다. 나그네는 하룻밤 자고 가기를 간청했으며, 여인은 쾌히 승낙하면서 방으로 안내했다. 여인은 저녁밥을 차려다 주고 대접을 융숭히 해줬다. 저녁밥을 든 나그네는 피곤이 몰려와 곧장 깊은 잠에 빠졌는데 잠 속에서 몸이 부자유스러움을 느껴 눈을 떠보니 커다란 구렁이가 온몸을 칭칭 감고 있었다. 나그네는 놀라 “아무리 미물일지라도 죄 없는 선비를 해치려고 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 하고 소리치자 구렁이는 두 갈래 혀바닥을 날름거리며, “손님은 오늘 오시다가 도중에서 살생을 했소. 그 구렁이는 내 남편이요. 그를 죽였으니 임자도 마땅히 죽음을 당하여야 하오!” 라고 대답했다. 나그네는 대답도 제대로 못하고 살려 달라고 빌었다. 그러자 구렁이는 “절 뒤 종루에 종이 있는데 그것을 세 번만 울리면 살려줄 수가 있소!” 하고 조건을 내놓았다. 나그네는 자신의 활 솜씨를 믿고 그까짓 종썸은 문제없이 맞춰 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날이 새기만을 기다렸다. 날이 밝자 나그네는 절 뒤뜰에 나가보았다. 그랬더니 구렁이가 이야기한대로 종루가 있고 그 끝에는 종이 달려있었다. 그러나 그 종루는 어찌나 높은지 다른 종루와는 달랐다. 나그네는 화살을 뽑아 시위에 걸고 힘껏 당겼다. 그러나 첫 화살은 종에 미치지 못하고 떨어지고 말았다. 둘째 화살도 첫 화살처럼 종을 미칠 듯 미칠 듯하다가 땅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나그네는 마지막 화살을 뽑아 있는 힘을 다하여 다시 종을 향해 쏘았다. 마지막 화살도 종에 미치지 못하고 그냥 떨어지고 말았다. 나그네는 이제는 할 수 없이 구렁이에게 죽임을 당해야겠구나 하고 탄식을 하면서 발걸음을 돌리려던 때였다. 그런데 이게 웬 변고인가? “땡! 땡! 땡!” 하고 종루에 종이 세 번 울리는 것이었다. 종이 울리자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구렁이의 변신인 소복한 여인은 온데 간데 없이 사라져 버려 나그네는 위기를 면하게 됐다. 나그네는 종소리가 난 것이 하도 이상해서 종루 밑을 살펴 보았다. 그랬더니 그곳에는 꿩 세 마리가 머리가 터져 죽어있었다. 전날 살려준 꿩의 식솔들이 은혜를 갚기 위해 나그네의 위협을 구하고자 머리로 종을 치고 죽은 것이었다. 이후부터 사람들은 이 산을 꿩이 보은을 한 산이라 하여 꿩 치(雉)자를 써서 雉岳山이라고 바꾸었다.

구렁이의 배경

치악산의 상원사 주지스님은 욕심이 많고 속세사람과 같은 데가 많았다. 어느 해 신종(新鍾)을 만들기 위해 주지스님은 십만의 가구에서 그 집 식구대로 숟가락 하나씩 거두어 들였다. 이 주지스님은 처음에는 불심 그대로 종을 만들려고 했으나 견물생심이라 슬며시 탐욕이 생겨 걷어 들인 숟가락 중에서 절반쯤은 숨겨두고 나머지로만 종을 만들어 놓다란 종각에 매달았다. 이 종은 서라벌 신종만은 못해도 나라의 태평과 안녕을 빌기에는 손색이 없는 것처럼 보였으며, 마침내 거창한 시종식(試鍾式)을 갖게 되었다. 식구 수대로 숟가락을 바친 시주들이 구름떼처럼 몰려들어 이 큰 종의 첫소리를 들으려 했다. 몰려든 사람들은 큰 종의 모습을 보고 모두 스님의 노고를 칭찬했다. “참으로 수고했습니다. 스님의 공덕이 아니었던들 이렇게 큰 종을 만들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내용도 모르고 칭찬이 자자했다. 맨 처음 종을 치는 것은 스님이 손수 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것이 웬일인가? 종을 쳐도 종소리가 나지 않았다. 언거푸 몇 차례 종을 쳐보았으나 바위를 때리는 소리만큼도 나질 않았다. 모여 있는 사람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그때 하늘에서 부터 부처님의 목소리가 들려 왔다. 저주의 목소리였다. 그 스님은 부처님의 저주를 받아 구렁이가 된 것이다.

비로봉 미륵불탑 유래

미륵불탑은 치악산 최고봉인 비로봉(1,288m)에 서 있는 3개의 돌탑이다. 이 탑은 원주시내에 거주하며 조그만 과자방을 운영하던 용진수라는 사람에 의해 쌓여졌다고 전해진다.

어느 날 꿈에 산신령이 나타나 “나는 치악산 산신령이다. 너는 지금부터 내가 있는 치악산 비로봉(시루봉)에 3개의 돌탑을 쌓되 너 혼자 힘으로 직접 쌓기를 원한다” 며 탑의 모양을 말해 주고는 사라져 버렸다고 한다. 잠에서 깨어난 용씨는 가족회의를 열고 탑을 쌓기로 결심하였으며, 그 날부터 3년간 3일에 2일은 탑을 쌓고 1일은 장사를 하여 생활을 하였다.

탑 쌓기는 3년 만에 완성되었으나 어찌된 일인지 하룻밤 만에 무너졌으며, 다시 산신령이 나타나 다시 쌓아 놓으라는 말을 남기고 떠나버렸다. 그리하여 용씨는 다시 3년에 걸쳐 탑을 쌓고 다시 하룻밤 만에 무너져 내렸고, 다시 쌓으라는 산신령의 말에 3년에 걸쳐 쌓은 탑이 지금의 미륵불탑이다. 이곳에서 산신제를 드리니 산신령이 말하길 “나라의 고관인 ○○○가 이곳을 다녀가고 그가 먼저 복을 받은 후, 다음으로 원주시민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였으며, 또한 그동안 용씨의 부인이 6명이나 죽었으나 앞으로는 행복하게 살 것이란 말을 하였다고 한다.

2. 치악산의 지리적 환경

치악산은 우리 국토의 등줄기인 태백산맥의 허리에서 남쪽으로 내리닫는 차령산맥 남쪽 끝에 자리 잡고 있다. 이 곳은 유달리 지형이 험하고 골짜기가 많아 곳곳에 산성과 사찰, 사적지들이 널리 산재해 있으며, 곳곳에 어울리는 전설을 간직하고 있다. 또한 치악산 국립공원은 수도권 일일관광지와 주말 휴양지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으며, 청소년 자연학습의 요람으로 조성되고 있다.

치악산은 주봉인 해발 1,288m의 비로봉을 중심으로 동쪽은 황성군, 서쪽은 원주시와 접하고 있다. 남북으로 뻗어 내린 치악산은 비로봉을 중심으로 남대봉(1,181m)과 북쪽의 매화산(1,085m) 등 1천여 미터의 고봉들이 연이어 솟구쳐 있으며, 사이사이로 가파른 계곡들이 자리잡고 있다.

이처럼 치악산은 주능선 서쪽이 급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동쪽은 비교적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다. 특히 구룡사에서 비로봉을 향해 뻗은 북쪽은 능선과 계곡이 가파르기로 유명하다. 치악산에는 구룡계곡, 부곡계곡, 금대계곡 등 아름다운 계곡과 신선대, 구룡소, 세림폭포, 상원사 등의 명소가 곳곳에 산재해 있으며, 사계절에 따라 봄에는 진달래와 철쭉, 여름에는 구룡사의 울창한 숲과 깨끗한 물, 가을의 단풍, 특히 겨울 설경이 장관이다.

II. 치악산 주변 지역의 명칭 및 유래

The Name & Origin of Mt. Chiak's surrounding countries

1. 소초면 학곡리	6
2. 소초면 흥양리(황골)	9
3. 원주시 행구동	11
4. 판부면 금대리	13
5. 신림면 성남리	16
6. 강림면 강림리	19
7. 강림면 부곡리	21

1. 소초면 학곡리

위 치

학곡리는 치악산 국립공원 및 구룡사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이다. 동쪽으로는 횡성군 우천면과 접해 있고 서쪽으로는 평장리, 남쪽으로는 치악산이 횡성군 강림면을 가로막고 있다. 북쪽은 횡성군 우천면과 접하여 있다. 동과 남으로는 치악산과 그 줄기인 매화산이 막혀 있다.

유 래

현 학곡저수지를 활골저수지라고 하는 등 활골이라는 지명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활골을 한자로 학곡으로 적은 것으로 추정되나 명확하지 않다.

연 혁

본래 소초면의 지역으로서, 팔리(八里)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대곡, 이흥, 백교, 수철, 삼신, 신흥, 장대, 칠송, 토동, 토정을 병합하여 학곡리라 하였다.

특이사항

학곡리는 주민 90% 이상이 관광객을 상대로 상업에 종사하는 지역이다. 치악산 국립공원 내에는 구룡사 대웅전이 있고 치악산 시루봉에서 서북간의 계곡인 구룡골은 치악산을 대표할만한 명산계곡으로 이름이 높다.

주요지명

- ▶ 길재 : 구룡사 입구 신흥동에서 평장리 안골로 넘는 고개이며, ‘당재’, ‘길현’이라고도 한다. 고개가 길다고 하여 ‘길재’라 하였다.
- ▶ 구룡골 : 구룡사 앞의 긴 골짜기를 말하며, ‘구룡계곡’, ‘큰골’이라고 한다. 구룡사가 있는 골짜기를 ‘구룡골’, ‘구룡계곡’, ‘큰골’로 부르는데, ‘구룡골’, ‘구룡계곡’은 구룡사 부근에서부터 부르는 이름이고, ‘큰골’은 학곡저수지에서부터 골짜기 전체를 칭하는 이름이다.
- ▶ 대곡(大谷) : ‘큰밭’이라 불리우던 마을로서, 영말 남쪽 구룡사 큰 골짜기에 있는 마을을 말하고, ‘큰골’이라고도 한다.
- ▶ 대성암터 : 구룡폭포 위에 있었다는 절터이다.

- ▶ 도실암 : 구룡사 위 화전민이 살던 마을로 치악산약초원이 있던 자리이다.
- ▶ 동락원 : 구룡사 동쪽 개울 건너에 있던 마을로서 현재는 집터만 남아 있다.
- ▶ 막골 : 구룡골에 딸린 골짜기를 말하며, 옛날에 여기에서 막을 치고 살던 곳이라 하여 ‘막골’이라 불렀다. 이곳에 절이 있었다고 하는데 위치는 확인할 수 없다.
- ▶ 매지골 : 한다리 동쪽으로 나 있는 골짜기로 수레너미로 이어진다.
- ▶ 매화산 : 한다리 남동쪽에 있는 높이 1,985m의 산이며, 신선봉이라고도 한다. 소초면 학곡리, 황성군 우천면, 황성군 강림면의 경계로서 수레너미를 경계로 하여 치악산과 구분되며, 북쪽에는 강림으로 넘어가는 전재가 있다.
- ▶ 배너미골 : 세림폭포가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 ▶ 배너미재 : 세림폭포에서 이어지는 배너미골로 연결된 고개를 말하며 ‘배너미재’라고도 한다. 옛날 큰 홍수가 났을 때 이곳으로 배가 넘어 다녔다고 해서 유래하였다. 천지봉에서 남쪽으로 이어지며, 서쪽으로는 비로봉에 닿고 남쪽으로는 강림면 부곡에 닿는다.
- ▶ 범담재 : 구룡사에서 영말로 넘어오는 고개로서, 옛날 범이 나타났다고 하여 유래되었다.
- ▶ 사다리병창 : 구룡사 큰골에서 세림폭포와 갈라지는 곳에서 시작되는 바위로 된 치악산의 주 등산로이다. 바위 모양이 사다리를 곤두세운 것 같다고 하여 사다리병창이라고 부르며, 병창은 영서 방언으로 ‘벼랑, 절벽’을 뜻한다.
- ▶ 새재골 : 새로 생긴 고개 밑이라 하여 ‘새재’라는 이름이 붙었으며, 이 골짜기는 원주시로 통한다.
- ▶ 선녀탕 : 구룡소와 세림폭포 중간에 위치해 있으며, 도실암골에서 내려오는 물줄기가 우물을 이루고 있는 곳이다. 선녀들이 목욕하러 내려온 곳이라 해서 ‘선녀탕’이라 부른다.
- ▶ 세림폭포 : 구룡사 큰골에서 배너미골 입구에 있으며, 천지봉에서 내려오는 물줄기가 폭포를 이루는 곳이다.
- ▶ 수레너미재 : 한다리에서 동남쪽 골짜기로 길게 이어지는 고개로서, 동쪽으로는 강림과 통하고 북쪽으로는 매화산 능선과 연결되며 남쪽으로는 진달래능선

을 거쳐 치악산 천지봉과 연결된다.

조선시대 태종 이방원이 스승인 운곡 원천석을 찾아 강림으로 갈 때 수레를 타고 넘었다고 하여 유래하였다.

- ▶ 숙새울 : 무쇠점 서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로 숙새울, 동골로 가는 길에 있으며, ‘삼신동 숙새울’이라고도 한다. 3을 뜻하는 ‘석’의 영서방언 ‘숙’이 쓰여 ‘숙새울’이 되었다.
- ▶ 시루봉 : 치악산의 가장 높은 봉우리로 해발 1288m이다. 모양이 시루같다 하여 ‘시루봉’이라 하였으며, ‘비로봉’, ‘비루봉’, ‘비호봉’이라고도 하며, 정상에 큰 돌탑 세 개가 있다.
- ▶ 영말 : 구룡사 입구에서 왼쪽에 있는 마을을 말하며, 현재 자연학습원 위치이고, ‘이흥’이라고도 한다. 옛날에 역이 있었다고 하여 역말>영말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고, 이 마을 이름을 ‘이흥’이라고도 하는 것으로 보아 역과는 상관없이 이흥>이흥>이영>영으로 바뀌었을 것으로 추정되기도 한다.
- ▶ 천지봉 : 영말 골짜기 위에 위치하며, 구룡사의 동남쪽에 있는 높이 1,086m의 봉우리이다. 8개의 능선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는 구룡사 대웅전 자리에 살고 있던 9마리의 용 중 8마리가 동해로 황급히 도망치면서 생겨난 것이라고 한다. 구룡사에서 마주 보이는 가장 큰 봉우리로 북쪽으로는 진달래능선을 거쳐서 수레너미, 매화산으로 향하고 남으로는 배너미재를 거쳐서 비로봉에 닿는다.

1. 소초면 홍양리(황골)

위 치

홍양리는 소초면 남쪽에 있다. 동쪽으로는 치악산 줄기인 삼봉과 투구봉으로 막혀 있고 서쪽으로 원주시 태장동, 남쪽으로 원주시 봉산동과 행구동, 북쪽으로 수암리와 접하고 있다.

유 래

원래 원주군 본부면의 지역으로서 홍양, 또는 이리(二里)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홍양리로 부르게 되었다. 홍양 마을의 이름을 따서 홍양리라고 하였다.

연 혁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시탄, 황곡, 상초구, 송문, 직산을 병합하여 홍양리라 하여 원주면에 편입되었다가 1938년에 소초면에 편입되었다.

특이사항

주민의 75%가 농업에 종사하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이다. 원주시와 접경하고 있어 도시 근교 농업이 발달되어 있다. 입석대와 입석사, 범문사가 있고 황골엿과 엿술이 특산물로 유명하다. 원주시와 접경을 이룬 관계로 급격하게 도시화되고 있으며, 황골은 특히 근래에 숙박업소와 식당이 많아져서 원주시민들이 많이 찾고 있다.

주요지명

- ▶ 삼봉 : 치악산의 자락으로 세 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져 있다. 쥐너미재에서 다시 북쪽으로 능선이 시작되는 첫 봉우리이며, 북으로 투구봉과 토끼봉이 있다. 일제 때 혈을 끊기 위해 이곳에 쇠말뚝을 박았다고 한다.
- ▶ 신선대 : 입석대 남쪽에 있는 높이 20m의 바위를 말한다. 치악산 산신령이 이곳에 있는 물을 즐겨 마셨다고 하여 해마다 산신제를 지낸다고 한다. 신라 때 의상대사가 이곳에 토굴을 짓고 수도하였다는 전설이 있다.
- ▶ 원통재 : 황골과 횡성군 강림면을 잇는 고개로 치악산 능선을 넘는다. 태종 이방원이 원천석을 찾다가 못 찾아 쉬면서 “못 찾아 원통하다”고 해서 유래하였다고 한다.

- ▶ 쥐너미재 : 범골에서 도실암골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하며, 북쪽으로는 삼봉과 투구봉, 토끼봉 능선이 있다. 쥐떼가 넘어간 고개라 하여 ‘쥐너미재’라고 한다.
옛날 범골에는 범사(凡寺)라는 절이 있었는데 쥐가 너무 많아 스님들이 쥐 등살에 견디지 못 하고 절을 떠났다고 한다. 하루는 그 많은 쥐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줄을 지어 범사를 떠났는데 그 후로는 이 범사를 찾는 사람이 없어졌고 절은 폐사되었다고 한다.

- ▶ 황골 : 피미에서 입석대까지 이르는 큰 골짜기를 말한다. 황골은 골짜기 색깔이 노랗다는 뜻이 아니라 크다는 의미의 한+골 > 한골 > 항골 > 황골로 변천된 것이다. 따라서 큰 골짜기를 말한다. 실제로 황골은 아래황골, 윗황골로 나뉠 만큼 큰 골짜기이다.

- ▶ 피미 : 새두둑 서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마을 앞에 조그마한 동산이 있는데, 옛날 전란 때 노적더미로 가장하여 적병을 물리쳤다고 한다. ‘피’는 옛날에는 벼 대신에 구황작물로도 쓰던 일종의 곡식이다. ‘미’는 산을 뜻하는 ‘피’가 변한 것이다 즉 피+피(山) > 피피 > 피메 > 피미가 되었다. 뜻은 ‘피가 많은 산’, ‘피농사를 짓던 산’ 또는 전설과 연관시켜 ‘피짚으로 덮은 산’으로 풀이된다. ‘피’가 들어가는 지명에는 대체로 피를 많이 흘렀다거나 전쟁과 관련시켜서 해석하는 수가 많은데 이처럼 곡식의 일종인 피와 관련된 것도 많이 있다고 한다.

- ▶ 새두둑 : 피미 동쪽에 있는 마을로 투구봉의 동쪽 아래에 있으며, 초구리(草邱里)라고도 한다. 억새가 많은 둔덕이라고 해서 ‘새두둑’이라고 불렀다.

- ▶ 문수사터(文殊寺) : 문수골에 있던 절터로서, 마을사람들은 문수암이라고 한다. 연혁은 알 수 없으나 산재한 기록에 의하면 조선 초기에 서거정이 여기에서 공부를 하였고 운곡 원천석의 시에도 문수사가 있어서 고려시대에 창건된 것으로 보인다. 석불좌상이 남아 있으나 많이 훼손되었다.

- ▶ 봉사절터 : 범골 낙수봉 밑에 있던 절터로서 높이 1.5m 가량의 축대가 길게 남아 있으며 오른쪽 낭떠러지에도 축대가 남아 있다. 건물의 흔적이 비교적 뚜렷이 남아 있고 큰 우물도 있다. 기암절벽에서는 아직도 민간인들이 기도를 하고 있으나 봉사절터라는 이름만 전할 뿐 연혁은 알 수 없다.

3. 원주시 행구동

위 치

행구동은 원주시청에서 동쪽으로 2.7km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치악산을 경계로 하여 횡성군 안흥면, 서쪽으로는 봉산동, 남쪽으로는 반곡동, 북쪽으로는 소초면에 접해있다.

유 래

원래 원주군 부흥사면(富興寺面)의 지역으로 살구나무가 많으므로 살구독, 또는 행구(杏邱)라 하였다.

특이사항

행구동은 국립공원 치악산을 등지고 앉아 광활한 원주벌을 내려다 보고 있다. 예로부터 순수한 농촌 지역이었으며 고려말의 충신 운곡 원천석 선생의 얼이 숨쉬는 곳이다. 관내에는 치악산의 송림 속에 자리한 국형사와 관음사, 연암사, 보문사 등 고찰이 많으며 골짜기마다 비경을 자랑하는 관광자원이 때묻지 않은 채 보존되고 있어 시민의 피서 및 휴식처로 사랑받는 지역이다.

또한 지역의 기술인재육성의 요람이 된 원주공고가 위치하고 있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 및 기타 기반시설들이 확충되고 있다. 특히 치악산 자락을 중심으로 하여 숙박업과 음식점이 많이 들어서고 있다.

주요지명

- ▶ 가는골 : 현재의 관음사 길을 말하며, 길이 좁고 가늘다고 하여 ‘가는골’이라 한다.
- ▶ 가리봉 : 고문골에 있는 바위로서 ‘가리봉바위’라고도 한다. 바위 두개가 나란히 선 위에 또 하나의 바위가 얹혀 있다.
- ▶ 개산골 : 신월랑 뒤에 있는 치악산 골짜기를 말한다.
- ▶ 개산절터 : 연암사 우측, 치악산 능선 부근에 가리봉이 정면으로 보이는 곳에 있는 절터로서 높이 2m 이상의 축대가 길게 남아 있고 많은 석재와 기와편, 도자기조각이 산재해 있다. ‘개산절터’라는 이름만 전할 뿐 자세한 연혁은 알 수 없다.
- ▶ 거름터 : 신월랑 동북쪽에 있는 마을로 ‘거음터’, ‘거음대(巨音垜)’라고도 한다. 거름을

많이 모아두는 곳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 고둔치 : 행구동 관음사 동쪽으로 난 고개를 말한다. 황성군 강림면 부곡으로 넘어가는 고개로 예전에는 사람의 왕래가 많았다고 하며, 고둔치 계곡은 경관이 아름다워 치악 8경 중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 ▶ 고문골 : 오리현 뒤에서 국형사와 보문사가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국형사 앞까지를 ‘아랫고문골’, 그위 보문사까지를 ‘윗고문골’이라고 부른다. ‘보문골’, ‘범수골’이라고도 한다. 보문사의 예전 이름이 ‘고문절’이었으므로 그 이름을 따서 ‘고문골’이라 부른다.
- ▶ 돌경이 : 신월랑 북동쪽, 석경사가 있는 마을이며, ‘돌개’, ‘석경’, ‘석경촌’이라고도 한다. 두문동(杜門洞) 72인의 한 사람인 윤곡 원천석의 묘소와 재실이 있으며, 매년 가을 원주 원씨의 시제(時祭)가 이곳에서 봉행된다.
- ▶ 살구둑 : 원주시 동쪽, 국형사 아래 치악산 자락에 있는 마을이며, 살구나무가 많아서 ‘살구둑’이라 하였다가 지금은 ‘행구동’이라고 한다.
- ▶ 배울 : 살구둑 서쪽에 있는 마을로, ‘배물’, ‘이곡’이라고도 한다. 전부터 배나무가 많다고 하여 불리워졌다고 한다.
- ▶ 신다랭이 : 살구둑 동쪽에 있는 마을로서, ‘신월랑’이라고도 한다. 작은 논배미가 쉽게 나 될 정도로 많아 ‘신다랭이’로 불리워졌다고 한다. 지금은 큰 저수지가 있어 주민의 농업용수 제공은 물론, 낚시터로 이용되고 있다. ‘신다랭이’가 ‘신다랭이’로 변화되었고 이를 한자로 적어서 ‘신월랑(新月朗)’이라고 하였다. ‘新’과 ‘郎’은 음차를 한 것이며, ‘月’은 의미를 딴 것이다. ‘다랭이’는 산 골짜기에 있는 층층으로 된 좁은 논배미를 가리키는데 다랭이를 달과 결부시켜 ‘신월랑’이 되었다.
- ▶ 큰미랭이 : 미랭이의 큰 마을로 고둔치재 오른쪽을 가리킨다.
- ▶ 향로봉 : 보문사 동쪽 위, 치악산 줄기에 있는 높이 1,042m의 산봉우리를 말한다.

4. 관부면 금대리

위 치

원주시의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동쪽으로는 횡성군 강림면과 경계를 하고 서쪽으로는 서곡리, 남쪽으로는 신림면과 충북 제천, 북쪽으로는 관설동과 접하고 있다.

유 래

금 또는 금향아리가 묻혀 있다는 집터의 전설인 금시발복(金時發福)에 의해 오늘날까지 금대리로 불려지고 있다. 또는 금대산성 밑이라 하여 금대리라고 부른다고도 한다.

연 혁

원래 원주군 부흥사면의 지역으로 금대골, 금대곡이라 하였다. 또는 부흥사면의 첫 동네라서 일리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때 도사리, 한여, 회론, 원동, 문현, 일론을 병합하여 금대리라고 하여 관부면에 편입되었다.

특이사항

금대리 지역은 치악산과 백운산이 겹치는 계곡에 위치하여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곳의 주산물로는 미곡과 함께 복숭아를 다수 농가가 재배하고 있으며, 토봉과 웃나무를 재배하여 전국 제일의 꿀과 옷진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금대리의 명소인 회전터널은 루프식 터널로서 ‘또아리굴’ 또는 ‘금대터널’로 불리고 있다. 길이가 1,970m로 또아리처럼 원형을 그려 한바퀴 돌아 치악산을 뚫고 신림 방면으로 나가다가 다시 치악터널을 맞게 된다. 치악터널은 3,650m로서 10리 굴이라고 불린다. 또아리굴 속에는 종유동굴이 있는데 이 속에는 작은 연못과 종유석 및 넓은 광장이 있어 관광지로서 개발 전망이 밝은 곳이다. 6·25 동란 때는 국군 및 지역민들의 은신처가 되기도 했다고 한다.

주요지명

- ▶ 가리파고개 : 금대리와 신림 사이에 있는 고개를 말하며, ‘치악재’라고도 한다.
- ▶ 금대골 : 금대초등학교 앞 골짜기를 말하며, 금대리 전체를 말하기도 한다. 금대골을 넘으면 쇠마담과 신촌리 새말이 나온다. 옛날에는 이 고개를 넘어서 새말 학생들이 금대초등학교를 다녔다고 한다.
- ▶ 금대산성 : 해미산성을 말하며, ‘노고산성(老姑山城)’이라고도 한다. *[(IV. 산성)편 참조]*

- ▶ 느릅실 : 금대초등학교 뒤의 큰 마을을 말하며, 느릅나무가 많았다고 하여 ‘느릅실’이라고 한다.
- ▶ 도둑바위 : 가리파재 아래, 현 그린가든 바로 옆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옛날에 소장수 등 사람들이 고개를 넘어 다닐 때 이 바위 뒤에 도둑들이 숨어 있다가 물건을 빼앗았다고 하여 ‘도둑바위’라 한다.
- ▶ 도사굴 : 대도사 남서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예전 난리가 났을 때 101사람이 이곳에 있는 바위굴로 피난을 하였는데 어린 아이가 엄마를 끌고 나오자마자 굴이 무너져서 두 사람만이 살았다고 한다.
- ▶ 바람소 : 영원사 밑에 있는 소로서, 모양이 마치 종이 지고 다니는 바람같다고 하여 ‘바람소’라고 부른다. 지금은 거의 다 메워지고 흔적만 남아 있다.
- ▶ 사천왕사터 : 금대3리 원동 안에 있는 절터로서, 1989년 실시된 중앙고속도로 예정지 지표조사에서 석탑재와 축대 및 기와편들이 출토되어 1991년에 발굴되었다. 정확하게 언제 창건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적어도 고려 현종 거란의 침입이 있을 때 창건된 것으로 보인다. 암자 형태로 16,7세기까지 내려오다 폐사된 것으로 추정된다.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일제 때 중앙선 철교공사와 광복 후 도로개설 당시에 절터의 많은 유물이 파손되었다고 한다.
- ▶ 산성사터 : 기록에 의하면 영원산성을 지키기 위한 절이었다고 한다. ‘영원사’를 의미하는지 ‘산성사’라는 다른 절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 ▶ 세존대 : 남대봉 서쪽 바로 앞에 있는 바위를 말하며, 바위가 마치 엄지 손가락을 세운 것 같다고 하여 엄지바위, 만물의 형상을 하고 있다고 하여 ‘만물상’이라고 하기도 한다.
- ▶ 수리봉 : 곰네미와 생개골 위, 내원 북동쪽에 있는 높이 811m의 산을 말한다. 독수리가 새끼를 치고 살았다고 하여 ‘수리봉’이라 한다.
- ▶ 아들바위 : 영원사 위에 있는 바위로서 영원사에서 계곡방향으로 10분 거리에 있다. 이 바위에서 득남하기를 빌면 아들을 낳는다고 하여 ‘아들바위’라 한다.
- ▶ 아흔아홉골 : 대도사 서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하며, 골이 아흔아홉개나 될만큼 깊다고 해서 ‘아흔아홉골’이라 하며, ‘대도사골’이라고도 한다.
- ▶ 원동(院洞) : 내원골 입구, 무두러니 북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이며 ‘원터’라고도 한다. 조선시대 행인의 편의를 도와주는 원집이 있었다고 한다.

- ▶ 은안장백이 : 금대리에 있는 마을로서 은안장이 박힌 곳이란 뜻이다. 임진왜란 때 박종남이란 무사가 목욕을 하기 위해서 말에서 은안장을 내렸다가 왜적의 공격을 받고는 말안장을 챙기지 못하고 도망쳐 버린 후 이것이 땅에 묻혔다고 하여 ‘은안장백이’라 불리어졌다.
- ▶ 의사봉 : 중살은골 위에 있는 봉우리로서, 의사봉에 구름이 돌면 아무리 가뭄이 심해도 비가 온다고 한다.
- ▶ 일론(日論) : 금대계곡 안쪽에 있는 마을로서, ‘홀론’, ‘홀른’이라고도 한다. 임진왜란 때 김제갑 장군이 왜병을 크게 무질렀는데 이 때 계곡에 피가 많이 흘렀다고 하여 ‘홀론’, ‘홀른’이라고 부른다고 한다. 골짜기에 있는 논이라 해서 실(谷)+논(畓) > 실논 > 실론 > 일론이 되었다는 추정도 있다.

5. 신림면 성남리

위 치

성남리는 신림면사무소에서 3km 떨어진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 동쪽으로는 매화산 줄기를 경계로 하여 황둔리, 서쪽으로는 금창리, 남쪽으로는 신림리, 북쪽으로는 남대봉을 경계로 하여 황성군 강림면과 접하고 있다.

유 래

성남리 북쪽에 있는 치악산에 금두산성이 위치하고 있어 성(城)의 남쪽에 마을이 위치하고 있다고 하여 ‘성남리’로 불리어지고 있다. 또 백제시대 궁예가 성남리 서북쪽 절골에 절을 짓고 한동안 머물렀다고 기록에 전하는데, 이 때의 절 이름이 석남사(石南寺)였다. 석남사의 명칭이 변화를 하여 ‘성남리’로 부르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연 혁

원래 원주군 구을파면 지역으로 성남 또는 사리라고 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가둔지, 사동, 상원동, 전불, 주련동을 병합하여 성남리라 하였다.

특이사항

성남리는 치악산 국립공원에 속해 있어 산수가 수려하며 상원사, 성황림 등 유적과 전설을 많이 간직한 곳이다. 상원사는 설악산 봉정암 다음으로 남한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절인데, 이 절은 오늘날까지도 치악산이란 산명이 있게 한 유서 깊은 사찰로 은혜에 보답한 꿩과 구렁이의 이야기가 전하고 있다.

성황림은 고산식물에서부터 야산식물에 이르기까지 각종 초식물이 서식하고 있어 1962년 12월 3일 천연기념물 제93호로 지정되어 보호 관리하고 있다. 근간에는 많은 초식물이 점차 멸종되어 가고 있어 1990년 8월에 보호철망을 설치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주요지명

- ▶ 감투봉 : 아랫성남 서쪽 거무내산 동쪽에 있는 높이 493m의 산을 말한다.
- ▶ 대덕바위 : 성황림 앞에 있는 큰 바위를 말한다. 아랫성남과 윗성남 경계에 있는데, 지금은 다래덩굴이 우거져 잘 보이지 않는다. 윗성남쪽 다래덩굴을 걷으면 윗성남 처녀가 바람이 나고 아랫성남쪽 다래덩굴을 걷으면 아랫성남쪽 처녀가 바람이 난다고 한다. 마을 처녀 중 한 처녀가 바람이 났는데 그 아버

지가 석수쟁이를 불러 대덕암이라 새기고 난 후 ‘대덕바위’라 불리어지게 되었다고 한다.

- ▶ 목쟁이고개 : 아랫성남에서 큰주령골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하며, 목처럼 생겨서 ‘목쟁이고개’라고 한다.
- ▶ 무당소 : 회골폭포 앞에 있는 소를 말하며, 전에 무당이 빠져 죽어서 무당소라고 한다.
- ▶ 석남사터(石南寺) : 절골의 경작지 일대로서 석축과 석재가 다수 발견되어 상당히 큰 절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절터에서 ‘석남’·‘만’·‘대평’·‘남사’ 등의 명문이 있는 기와가 발견되어 이곳이 ‘석남사지’였음을 확신할 수 있었다. 석남사는 궁예의 행적과 많은 관련을 가지고 있고 늦어도 조선시대 초기에 폐사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오늘날 이 지역을 ‘성남’이라고 하는 것도 이 석남사에서 유래하였을 것으로 보기도 한다.
- ▶ 성황림(城隍林) : 성남초등학교 남쪽에 있는 숲으로서 ‘당숲’이라고도 한다. 이 성황림은 천연기념물 제 93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우리나라 온대림의 일부로 보존되어 있는데 신갈나무, 털피나무, 느릅나무 등 50여 종의 목본식물과 습지식물이 함께 성장하고 있다. 이 숲은 역사적으로 볼 때 오래전부터 이곳에 정착하고 살던 사람들이 치악산의 성황신을 마을의 수호신으로 섬기던 서낭숲이기도 하다. 서낭당 옆에는 높이 29m의 큰 전나무와 10여 그루의 노목이 있다.
- ▶ 수림지(樹林地) : 성남1리 본동 입구에 있는 당숲을 말한다. 이곳에는 큰 소나무 20여주가 울창하게 들어서 있다. 옛날에는 더 많은 나무들이 우거져 있었으나 홍수로 인해 많이 소실되었다. 본래는 이곳 노송들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으나 송림의 수가 줄고 특별한 가치가 없어 제외되었다.
- ▶ 짜리재 : 성남에서 황둔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짜리나무가 많다 하여 ‘짜리재’, ‘짜리치재’, ‘짜리고개’라고 한다. 신림터널이 생기고 난 후 짜리재는 거의 폐쇄되어 기존의 도로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 ▶ 절골 : 윗성남에서 북서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하며, ‘사동’이라고도 한다. 옛날 석남사가 있던 곳이어서 ‘절골’이라고 부른다.
- ▶ 주령골 : 아랫성남 남쪽에서 동쪽으로 난 길 골짜기로 매봉산까지 이어지는 긴 골짜기로 ‘주련골’이라고도 한다. 치악산의 줄기가 주림처럼 되어 있다고 하여 ‘주련골’, ‘주림골’, ‘주령골’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 ▶ 주포천 : 남대봉 상원골에서 시작하여 성남리를 거쳐 신림리에서 운계천과 합류하는 川를 말한다.
- ▶ 촛대봉 : 회골에 있는 산봉우리로서, 모양이 촛대같이 생겨서 ‘촛대봉’이라고 한다.
- ▶ 칠성배기 : 전불 안에 있는 터로서, 옛날에 칠성당이 있어서 사람들이 와서 소원을 빌고 갔다고 하여 ‘칠성배기’라고 한다.
- ▶ 허궁다리 : 절골 안에 있는 골짜기로 여기를 지나면 금대리 일론이 나온다. 옛날에 큰 산사태가나서 돌들이 굴러 떨어지다가 산중턱에 쌓여 밭이 뚫린 다리모양을 하고 있어 허궁에 다리가 만들어 졌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 회골 : 옛날에 절골의 석남사 다음으로 이곳에 절을 지었는데 이 절에서 상원사의 기와를 구웠다고 한다. 옛날 절터 자리는 지금의 복민연수원 자리이다.

6. 강림면 강림리

위 치

동쪽으로 영월군 수주면, 서쪽으로 원주시 소초면, 남쪽으로는 원주시 신림면, 북쪽으로는 안흥면과 각각 접해있다.

유 래

이곳에 각림사(覺林寺)가 있어서 각림리로 불리다가 지금의 강림리가 되었다.

연 혁

본래 원주군 수주면의 지역이었으며, 고종 32년(1895)에 영월군에 편입되었고,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가이천, 노평, 노고소, 노들, 보거내, 선개, 창말, 수레너미를 병합하여 강림리라 하였다. 1963년 1월 행정구역 개편으로 수주면에서 횡성군 안흥면으로 편입되었다. 이후 1989년 4월 행정구역 개편에 의거 안흥면 강림출장소가 강림면으로 승격함에 따라 강림면에 편입되었다.

주요지명

- ▶ 노고소(沼) : 태종이 원천석을 만나러 이곳에 왔을 때 원천석은 이것을 미리 알고 노파에게 자신이 간 방향과 반대로 가르쳐 줄 것을 부탁했다. 잠시 후에 태종이 오자 원천석의 말대로 길을 반대로 가르쳐 주었다. 태종 일행이 길을 떠나자 임금을 속인 죄책감에 노파가 이 소에 빠져 죽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얼마 전까지도 이 노파를 모신 당이 노고소 옆에 있었다고 하며, ‘노구소’, ‘노호소’라고도 한다. *[(V. 역사 유물·유적)편 참조]*
- ▶ 말치골 : 보건네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조선 태종이 스승 원천석을 만나러 왔다가 만나지 못하고, 이 골에서 배향산을 향해서 배향을 하므로써 자신이 일을 마쳤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며, ‘말치골’이라고도 한다.
- ▶ 배향산 : 태종이 원천석을 만나지 못하자 이 산을 향해 배향을 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 ▶ 백대목 : 보건네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 골에서 호랑이가 많이 나타나서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하고, 용말숲에서 나온 흰말이 아기장수를 잃고 이 골로 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한다.

▶ 용말숲 : 노고소에 있는 터를 말하며, 용마가 나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전설에 의하면, 예전에 이곳에 살던 평강 최씨네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는 태어난 지 3일 만에 시렁 위에 올라가는 등 남다른 데가 있었다고 한다. 문중 회의를 한 결과 아이로 인하여 집안이 역적으로 몰릴 것이니 죽이자는 결론이 나왔다. 그래서 아이의 가슴에 팔 두 점을 올려놓고 죽였다고 한다. 이 아이가 죽자 숲에서 흰 용마가 나오더니 백대목으로 갔다고 한다.

▶ 태종대(太宗臺) : 조선 태종이 원천석을 찾아 부곡리에 왔다가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는 길에 이 곳에서 쉬어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그 후 ‘주필대(駐蹕臺)’라는 비석을 세우고 정각을 세웠다.

[(V. 역사 유물·유적)편 참조]

▶ 고사리재 : 강림4리 수레너미에서 강림3리 송실로 넘어가는 고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고사리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태종이 수리재와 이 고개를 넘어서 태종대로 갔다고 한다.

▶ 금방앗간터 : 수레너미에 금광이 있을 때 이곳에서 금을 선별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 두리봉 : 노뜰에 있는 산을 가리키며, 사방에서 이 산이 두루 잘 보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 모래소 : 예전엔 소가 깊어서 명주실 꾸리를 다 풀어도 끝이 닿을 수 없을 정도로 깊었다고 한다.

▶ 수레너미 : 강림4리 5반에 속하는 마을로, 태종이 수레를 타고 이곳으로 넘어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 수리재 : 수레너미에 있는 고개를 가리키며, 원주시 소초면 학곡리와 통한다. 현재 강림우체국이 위치한 곳에 각림사라는 절이 있었는데, 태종이 그 곳을 갈 때 수레를 타고 넘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 쥐산 : 산 모양이 쥐 형상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맞은 편에 있는 강림1리 고양이바위와 마주 보고 있는데, 두 마을 사이에 다리가 놓여 있기 전에는 이 마을이 잘 살았으나, 다리가 놓아진 후 고양이가 다리를 건너와 쥐산을 잡아먹는 형국이 되었으며, 현재는 강림1리 사람들의 형편이 더 좋다고 한다.

7. 강림면 부곡리

유래 및 연혁

본래 원주군 수주면의 지역으로서, 그릇 가마가 있었으므로 가마골, 가메골, 또는 부곡이라 하였는데, 고종 32년(1895)에 영월군에 편입되었고,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송정, 무래, 사성골, 부석골, 갈골, 고든골, 신박골, 가래골, 변아, 원통, 다리골, 횡지암을 병합하여 부곡리라 하였다. 1963년 1월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횡성군 안흥면에 편입되었다. 이후 1989년 4월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안흥면 강림출장소가 강림면으로 승격함에 따라 강림면으로 편입되었다.

주요지명

- ▶ 가래골 : 부곡1리 1반에 속하는 마을로, 가래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며, 추동이 라고도 한다.
- ▶ 가마골 : 부곡1리 3반에 속하는 마을로, 마을이 가마솥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하고, 마을에 가마소가 있어서 라고도 한다.
- ▶ 갈골 : 부곡1리 2반에 속하는 마을로, 예전에 갈대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 ▶ 마산 : 갈골에 있는 산으로, 산 형상이 말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 ▶ 말뚝봉 : 갈골에 있는 산으로, 옆의 마산을 이 산에 묶어 놓은 것과 같은 형상이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 ▶ 범람소 : 가래골에 있는 소(沼)로서,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 ▶ 변암(辯岩) : 가래골 위에 있는 바위로서, 고깔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운곡 원천석이 이곳에 머무르면서 공부를 했다고 한다.
[*(V. 역사 유물·유적)편 참조*]
- ▶ 횡지암(橫指岩) : 가래골 북쪽 골짜기에 있는 바위로, 태종이 그의 스승 원천석을 만나러 이곳에 왔으나, 원천석이 피하여 만나지 못하고는 그냥 돌아갔다. 그 후 운곡이 이 바위에 앉아서 제자인 태종을 “빛 가르쳤다”고 한탄하였다고 해서 ‘횡지암’이라 지었다는 이야기가 있고, 태종이 원천석을 만나러 왔을 때, 노고소에서 만난 노파가 원천석이 간 방향을 “빛 가리켰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한다.

- ▶ 나옹소 : 무례에 있는 소(沼)를 가리킨다. 전설에 의하면, 상원사 자리가 원래 늪지라 절을 지을 수 없자, 나옹대사가 이곳에 와서 지팡이를 땅에 꽂자 물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늪의 물이 이곳으로 빠져나옴에 따라 상원사를 지을 수 있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나라에 큰 일이 있으면 물이 흙탕물로 변해서 나오는데, 6·25때 그것을 목격한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 지금은 송어양어장이 있다.
- ▶ 고든치골 : 고든치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며, 골이 곧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원주시 행구동과 통한다.
- ▶ 다리골 : 고든치골 안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며, 예전에 다리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하고, 골이 길어 가다보면 다리가 아프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란 이야기가 있다.
- ▶ 부석골 : 무례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 골 안에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바위가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 ▶ 약물소 : 약물이 나와서 붙여진 이름으로, 지금은 송어양어장으로 변했다.

III. 사 찰

The Temples in Chiak-san National Park

1. 사찰의 건축물 및 조형물	24
<i>대웅전(24) / 일주문(24) / 사천왕문(25) / 불이문(26) / 범종각(27) / 관음전(30) / 응진전(30) / 조사전(국사전)(30) / 약사전(30) / 마북전(옹화전)(31) / 극락전(무량수전)(31) / 천불전(31) / 삼성각(32) / 탑(32) / 부도(35)</i>	
2. 구룡사	36
<i>위치(36) / 창건 및 연혁(36) / 유래(36) / 대웅전(37) / 일주문(38) / 보광루(39) / 기타 건축물(40)</i>	
3. 상원사	42
<i>위치(42) / 창건 및 연혁(42) / 유래(43) / 대웅전(43) / 삼층석탑(44) / 광배(45) / 용천 (45) / 용마암전설(45) / 기타 건축물(46) / 상원사중수비(47)</i>	
4. 입석사	48
<i>위치 및 유래(48) / 입석대(48) / 입석사석탑(49) / 마애불좌상(49)</i>	
5. 보문사	50
<i>위치 및 유래(50) / 청석탑(50)</i>	
6. 영월사	51
<i>위치 및 유래(51)</i>	
7. 연암사	52
<i>위치 및 유래(52)</i>	
8. 국형사	52
<i>위치 및 유래(52)</i>	
9. 석경사	53
<i>위치 및 유래(53)</i>	

1. 사찰의 건축물 및 조형물

대웅전(大雄殿)

대웅전은 석가모니불을 모시는 전각으로, 편액을 대웅전(大雄殿) 또는 대웅보전(大雄寶殿)이라 한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덕호(德號)가 대웅이기 때문이다. 대웅이란 진리를 깨달아 세상에 두루 펼친 위대한 영웅이란 뜻이다.

일반적으로 대웅전은 사찰 경내의 가장 중심에 위치하며, 내부에는 주존불인 석가모니불을 중심으로 좌우에 문수와 보현의 두 보살을 봉안한다. 이때 문수는 진리를, 보현은 지혜를 상징한다. 또 지혜와 복덕으로 따진다면 문수는 지혜이고 보현은 복덕이 된다. 이 두 협시보살은 이(理)에 의하여 지(智)를 나타내고, 지에 의하여 이를 나타내는 법신(法身)의 화신이다. 격을 높여 대웅보전이라 할 때는 주존불로 석가모니불을, 좌우에 아미타불과 약사여래를 모시며, 각 여래상의 좌우에 제각기 협시보살을 봉안하기도 한다.

대웅전 중심에 있는 불단을 수미단이라고 하는데, 불교에서 상상의 산인 수미산 꼭대기에 부처님이 앉아 자비와 지혜의 빛을 발하고 있음을 상징한다. 대웅전의 내부는 다른 어떤 건물보다 화려하고 장엄하며, 특히 단집과 불단의 조각이 매우 섬세하여 목조 공예의 진수를 엿볼 수 있다. 또한 불단 주변에는 여러 가지 화려한 꽃문양과 천의를 날리는 비천의 모습 등을 사실적으로 장식한다. 그리고 주불 위에는 단집을 만들어 화엄의 여의주를 입에 문 용(龍)과 극락조 등을 장식하며, 천장에는 보상화문과 연화문 등을 조각하여 불전에 나오는 천우보화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대웅전은 석가모니불이 임하는 장소이자, 사부대중이 예배를 드리고 설법을 듣는 영산회상의 장소이며, 피안의 정토를 향해 가는 반야용선의 선실을 상징한다.

일주문(一柱門)

당간지주를 지나면 수미산을 들어갈 때 거쳐야 할 세 개의 문 가운데 첫 번째 문인 일주문이 나온다. 여기서 세 개의 문이란 일주문·천왕문·불이문을 말한다.

일주문이란 기둥이 한 줄로 되어 있다는 의미로서, 사방에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얹은 일반 건축물과는 달리 한 개의 기둥 위에 지붕을 얹은 문이라는 뜻이며, 또한 이제 막 해탈교를 건너와 신성한 땅에 들어왔으니 세속의 어수선한 마음을 거두고 하나의 마음으로 모아야 한다는 의미 등을 담고 있다.

따라서 일주문은 번거롭고 혼란스러운 생각을 벗어나 깨달음을 향한 한 생각으로 마음을 가다듬는 곳이다. 그렇기에 일주문은 안정적인 건축물 구조와 비교해 볼 때 한 줄로 늘어선 기둥 위에 무거운 지붕이 얹혀져 있는 매우 불안해 보이는 구조이다. 하지만 전혀 불안한 느낌을 주지 않는 것은 바로 마음을 하나로 가다듬어 주기를 바라는 열망이 깃들여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불교에서는 일승의 법이 불지(佛地)에 들어가는 문호(門戶)가 된다는 뜻의 일승법문(一乘法門)이라는 말이 있다. 이때 일승법은 불법에서 가장 높은 법이며 온갖 진리가 그곳으로 귀착된다. 따라서 일주문의 기둥은 절대적인 진리, 즉 변할 수 없는 하나의 진리

를 상징한다.

우리나라의 일주문 대부분은 두 개의 기둥을 이용하여 일렬로 된 한 칸의 양식으로 된 곳이 많다. 그러나 경남 양산통도사와 부산금정산 범어사처럼 네 개의 기둥이 일렬로 되어 들어가는 곳이 세 곳인 일주삼간양식(一走三間樣式)을 취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사천왕문(四天王門)

해탈교를 지나 첫 관문인 일주문을 지나면 두 번째 관문인 천왕문을 만난다. 천왕문은 모든 귀신들의 왕이고 불법을 수호하는 힘을 가진 하늘의 왕이다.

원래 천상세계의 모든 귀신들을 거느리며 부처님을 귀롭혔던 존재들이었으나, 부처님에게 감화되어 불법을 수호하겠다는 서원을 세우고 불법을 지키고 보호하는 신장들이 되었다. 그러므로 4천왕은 부처님이 계신 곳, 부처님의 법을 설하는 곳, 그리고 부처님의 법을 실천 수행하는 수행자들을 수호하는 군사를 거느린 장군들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사천왕은 동·서·남·북 네 방위의 세계를 다스리는데 각 방위에 따라 주재하는 역할과 내용이 다르다. 사천왕은 위치하는 방위와 지닌 물건으로써 구별하지만 사찰마다 천왕과 지니는 물건을 달리하고 있어 『불교입문서』(대한불교조계종포교원 편저)에 근거해 구별해 보면 다음과 같다.

동쪽에는 지국천왕이 손에 칼을 들고 있고, 인간 감정 가운데 기쁨의 세계와 계절 중 봄을 관장한다. 술과 고기를 먹지 않고 향의 향기만 맡는 음악의 신인 건달바와 부다나신을 거느리고 동쪽 하늘을 지배하며, 얼굴색은 동쪽을 상징하는 푸른색을 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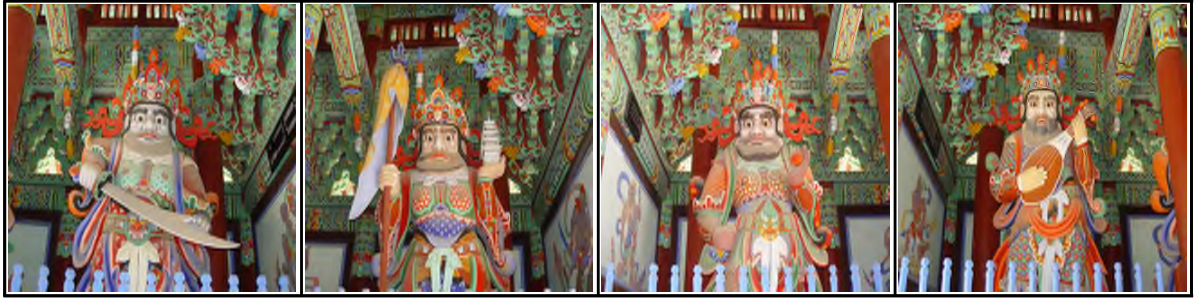
남쪽에는 증장천왕이 손에 용과 여의주를 들고 있고, 사랑의 감정과 여름을 관장한다. 구반다(사람의 정기를 빨아먹는 귀신으로 몸은 사람이나 머리는 말의 모습을 하고 있다.)와 아귀를 거느리고 남쪽하늘을 다스리며, 얼굴색은 남쪽을 상징하는 붉은색을 띤다.

서쪽에는 광목천왕이 손에 삼지창과 보탑을 들고 있고, 노여움의 감정과 가을을 관장한다. 용과 혈육귀로 불리는 비사사신을 거느리고 서쪽하늘을 다스리며, 얼굴색은 서쪽을 상징하는 흰색이다.

북쪽에는 다문천왕이 손에 비파를 들고 있고, 즐거움의 감정과 겨울을 관장한다. 야차와 나찰을 거느리고 북쪽하늘을 지배하며, 얼굴색은 북쪽을 상징하는 검은색이다.

이렇듯 사천왕은 네 방위를 지키는 존재이면서도 음양오행으로는 각각 목·화·수·금으로 이루어져 있고 중앙은 토로서 황금색을 뜻하며 완성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사천왕의 호위를 받아서 들어가는 존재는 완성된 존재임을 상징한다.

사천왕문은 사찰의 삼문 가운데 두 번째 문으로 네 방위를 수호하는 지국천(持國天), 증장천(增長天), 광목천(廣目天), 다문천(多聞天)을 봉안한다. 일반적으로 동방 지국천은 칼, 서방 광목천은 탑, 남방 증장천은 용과 여의주, 북방 다문천은 비파를 지물로 들고 있다.



지국천왕(동방)

광목천왕(서방)

증장천왕(남방)

다문천왕(북방)

▲ 네 방위의 수호신인 사천왕

불이문(不二門)

일주문과 천왕문을 지나 왼쪽에 있는 범종각을 지나면 수미산의 마지막 관문인 불이문이 나온다. 불이문은 사찰에 따라 해탈문, 또는 극락문이라고도 한다. 불이문은 곧 불국토를 만나는 곳이다. 곧 이 문을 지나면 불국토가 열린다는 뜻이다.

불이문은 ‘불이(不二)’의 의미에서 알 수 있듯이 둘이 아닌 하나의 경지인 불국토로 들어가는 문이다. 이 곳은 들어가는 자와 앉아 참선하고 있는 자, 중생과 부처, 나고 죽는 것, 번뇌와 보리, 세간과 출세간, 그리고 법계의 실상이 둘이 아닌 것을 깨달아 부처의 경지에 들어가는 관문이다. 그러므로 몇 가지 조형물을 통해 무명에 빠진 중생들에게 불국토가 어떤 곳인지를 상징적으로 느끼게 하는 곳이다.

또한 불국토를 보여 주는 과정을 단순하게 처리하지 않고 일종의 시각적 효과를 활용해 극대화시켰다. 불이문을 지나면 사찰의 최종 목적지인 불국토를 상징하는 불전이 나온다. 불전을 장엄하게 느낄 수 있도록 불이문은 주로 누각으로 조성하여 놓았다. 불전으로 가기 위한 통로를 누각으로 만들고 그 아래 통로는 좁게 만들었다. 그 이유는 밝은 빛을 통제하고, 계단을 오르면서 조금씩 불전을 보여주다가, 마지막 계단을 올랐을 때 밝은 빛이 한꺼번에 쏟아지듯 불국토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았던 것이다.

특히 영주 부석사의 경우에는 불이문 자체를 그렇게 볼 수 있도록 범종각부터 이러한 시각적 효과를 주었고, 종루 계단을 다 올라와서 오른쪽으로 약 45도 비껴서 보면 불이문이 보이도록 하였다.

다시 불이문에 이르면 불전 위만 멀리서 조금씩 보이다가 마지막 계단에 오르는 순간부터 장엄한 무량수전이 펼쳐지도록 해 놓았다. 이처럼 불이문은 전체 조망을 통제하여 마지막 계단을 올랐을 때 장엄한 느낌으로 불국토가 펼쳐지도록 하여 부처님의 장엄한 세계를 감동적으로 느끼게 하였다.

그것은 수행자가 일주문, 천왕문, 그리고 불이문에 이른 목적이 바로 부처님의 세계를 찾아오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 목적지가 바로 불이문을 지난 세계이기 때문이다. 불이문을 통과하면 색계 18천의 세계와 무색계 4천, 성문, 연각, 보살, 부처님의 세계를 불전에서 만나게 된다.

범종각(梵鐘閣)

범종각은 사천왕문을 지나면 만나게 되는 건물이다. 범종각의 위치는 법당에서 볼 때 오른쪽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것은 불교의 체용설(體用說)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체용설에서 체(體)는 본질을 말하고 용(用)은 작용을 말한다. 위치로 볼 때 체는 왼쪽에 해당하고, 용은 오른쪽에 해당한다. 따라서 소리 공양구인 사물이 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것을 안치하는 범종각을 법당의 오른쪽에 두는 것이다.

종각에는 하늘의 음악을 연주하는 모습이 새겨져 있는 종이 있다. 이것은 욕망을 제압한 수행자를 격려하며 하늘의 천인들이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는 것을 상징한다.

처음에는 범종만 있었으나 나중에 물에 사는 중생을 제도한다는 목어, 네발로 걸어 다니는 짐승을 제도한다는 법고, 그리고 날짐승을 제도한다는 구름모양의 동판으로 만든 운판을 같이 모아 네 가지 법구(法具)가 모여 있는 곳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범종각에 있는 네 가지 법구는 아침과 저녁의 예불에 주로 사용되며, 절안에서 큰 법회나 행사가 있을 때도 사용된다.

법 고



종각에 매달린 커다란 북을 말하며 ‘법을 전하는 북’이란 뜻이다. 곧 북소리가 널리 울려 퍼져 중생의 마음을 울리게 하듯이 부처님의 말씀이 잠자는 중생의 마음을 울려 깨닫게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법고는 네발 달린 짐승을 비롯한 땅에 사는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친다. 일반적으로 법고의 몸통은 나무로 만들고, 두드려서 소리내는 양면은 소의 가죽을 사용한다. 이때 암소와 수소의 가죽을 양면에 부착하는데, 이는 음양이 잘 조화되어야 좋은 소리가 난다는 믿음에서 나온 것이다. 소리를 낼 때는 작은 막대기 두 개로 마음 심(心)자를 그리듯 치는데 운판이나 목어와 달리 오랜 시간을 두드려 친다.

법고는 일반적으로 위에 매달아 놓고 치지만, 좌대에 설치하여 그 위에는 법고를 얹어 놓고 치는 경우도 있다. 이때 법고를 받치는 좌대는 지혜를 상징하는 사자의 형상으로 조성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불국사의 좌대는 거북 모양을 하고, 수덕사에는 거북이 용의 모양으로 변화되고 있는 기이한 형태의 좌대도 있다.

목 어

목어는 나무로 만든 고기판 뜻이다. 목어는 목어고(木魚鼓), 어고(魚鼓), 어판(魚板)이라고도 하며 나무를 깎아 잉어 모양을 만들고 속이 비게 파내어 불사에 쓰는 기구이다. 물고기 모양을 취한 데에는 두 가지 유래가 전한다. 하나는 물고기가 언제나 눈을 뜨고 깨어있으므로 그 모양을 따서 나무에 조각하고 두드림으로써 수행자의 잠을 쫓고 혼미를 경책했다고 한다.



또 하나의 이야기는 옛날 어느 절에 많은 제자를 거느린 훌륭한 스님이 살고 계셨다. 슬하의 제자들은 스승의 가르침에 따라 열심히 공부하는데, 오직 한 제자만이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며 나쁜 짓도 서슴지 않았다. 스승의 말씀에 따르지 않던 제자는 마침내 몸쓸 병에 걸려 죽게 되었다. 그는 죽자마자 곧 물고기의 몸으로 다시 태어났

다. 그런데 그 물고기의 등에는 커다란 나무가 솟아나 있어 해엄치기가 매우 힘들었고 파도가 칠 때마다 등에 있는 나무가 흔들려서 등에서는 피가 흘러 그 고통은 이루 말로 할 수 없었다. 하루는 그 물고기 전생의 스승인 스님이 배를 타고 물고기가 된 제자가 사는 강을 건너게 되었다. 그런데 등에 커다란 나무가 솟아나 있는 물고기가 뱃전으로 다가와 스님을 보며 슬피 우는 것이었다. 스님은 물고기가 전생에 그 못난 제자였다는 것을 알고 가없이 여겨 노력으로 등에 난 나무를 뽑아 없애고 설법을 해주었다. 절로 돌아온 그날 밤 스님의 꿈에 물고기의 몸을 벗어난 제자가 나타나 말하였다. “스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에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면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스님께 바라옵건데, 저의 몸에 있던 나무를 베어 저와 같이 생긴 물고기를 만들어 기회가 있을 적마다 나무막대로 때려 주십시오. 그러면 강이나 바다에 사는 물고기들이 그 소리를 듣고 해탈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의 이야기를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들려 주십시오. 좋은 교훈이 될 것입니다.” 스승은 그의 부탁에 따라 그 나무로 물고기 모양을 만들어 공부하는 사람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사용하였다고 전한다.

처음에는 통도사의 목어처럼 완전한 물고기 형상을 취하였으나 차츰 용의 머리에 물고기 몸을 취한 용두어신(龍頭漁身)의 형태로 변하였고, 여의주를 물고 있는 모습으로 정착되었다. 목어가 여의주를 물고 있는 것은 온갖 속박에서 벗어나 어떤 것에도 구애되지 않고, 자유로운 대자재(大自在)를 얻은 물고기(중생 또는 보살)를 상징한다.

운 판



운판은 판형으로 구조하여 구름모양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불린다. 운판에 새겨진 문양을 보면 구름 위에 해와 달을 좌우에 배치하였거나 전면을 구름모양으로 채운 경우가 많다. 때로는 범어로 ‘옴마니 반메흠’ 다섯 자를 새겨놓기도 한다. 원래 끼니때를 알리는 용도로 썼다고 하나, 요즘은 조식 예불 때 치는 의식용구로 사용된다. 운판은 공중을 날아 다니는 중생을 제도하고 허공을 헤매 떠도는 영혼을 천도하

기 위하여 만들어졌다고 한다.

운판도 종이나 범고처럼 공중에 매달고 나무막대기나 나무망치로 친다. 운판은 약하게

점점 크게 치는 울림소리와 세게 치다가 점점 약하게 치는 내림소리 방식, 곧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식으로 3번 정도를 반복하며 친다.

⚡ 운판은 쇠로 만들어져 있어 쇠 금(金)자와 날짐승 금(禽)자의 연상작용으로 날짐승을 제도하는 법구라고 전한다. 이것은 공중을 날아 다니는 중생이나 허공을 떠도는 영혼을 천도하기 위해 친다.

범 종



범종은 일명 경종(鯨鐘)이라고도 불리며 이는 종의 꼭지에 장식되어 있는 용에 얽힌 전설에 연유한다. 범종을 매달기 위한 목적으로 종 위쪽에 만들어 놓은 장치를 종뉴(鐘紐)라 하는데, 대부분 용의 형상을 취하고 있어 용뉴(龍紐)라고도 한다. 종 위에 앉아 있는 용을 특별히 포뢰(浦牢)라고 하는데, 포뢰는 바다에 사는 경어(鯨魚; 고래)를 가장 무서워하여 그를 만나면 놀라 크게 비명을 지르게 되고, 따라서 종소리도 우렁차게 울린다고 사람들은 믿었다. 범종의 소리를 경음(鯨音)이라 하는 것도 여기서 유래한다.

포뢰는 중국이나 일본의 종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우리나라 특유의 범종 장식물이다. 범종위에 포뢰를 앉히는 전통은 매우 오래되었는데, 포뢰와 관련된 최초의 기록인 『삼국유사』 권3 「탐상」 제4 ‘사불산·굴불산·만불산’조를 보면 “아래로 세 개의 자금종을 달아놓았는데 모두 각(閣)과 포뢰가 있고 경어로 당을 삼았다고 하였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찰에서는 의미 없는 둥근 통나무 형태의 당으로 종을 치고 있지만, 승주 선암사에서는 비늘문양이 뚜렷한 물고기 형태의 당을 사용하고 있다. 현재 범종각에 매달려 있는 이 당은 물론 근세에 만든 것이지만, 그 형태에 있어서 경어모양의 당으로 종을 쳤던 옛 전통의 희미한 흔적이라 할 수 있다.

“종이 울리면 돌아다니는 중들이 다 엎드려 머리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하고 은은히 염불하는 소리가 나는 듯 하였으니 그 중심체는 종에 있었다”라는 삼국유사의 내용을 보더라도 종은 절의 범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임이 틀림없다. 그래서 승도들은 우렁찬 소리가 나는 범종을 제작하려 했고, 그 묘책으로 종 위에 포뢰를 앉혔던 것이다.

절에서는 아침저녁으로 범종을 울려 주위 사람들에게 시작을 알림은 물론 불사의 의식인 법요(法要)와 포교가 있을 때 그 개시를 알리기 위해 치기도 한다. 하지만 범종을 치는 본뜻은 지옥의 중생들이 모두 고통에서 벗어나 즐거움을 얻도록 하는 동시에, 불법의 장엄한 진리를 깨우치게 하는데 있었다.

관음전(觀音殿)

관음전은 관세음보살(觀世音菩薩)을 안치하는 불전이며, 관음보살은 일명 원통대사(圓通大士)로도 불리우므로 관음전을 원통전이라고도 한다. 원통전이란 명칭은 주원융통(周圓融通)한 자비를 구한다는 뜻에서 붙여졌다. 원통전은 부불전(副佛殿)으로 보살단(菩薩壇)에 속하는 경우 관음전이라고도 한다. 관세음보살을 주불로 봉안한 불전으로 그 협시로는 남순동자, 해상요왕을 들 수 있으나 이들은 조각상(彫刻像)하지 않고 후불탱화에서만 나타나고만 있다.

관세음보살은 중생들을 모든 고난에서 구제하고 해탈로 인도해 주는 보살로 미륵신앙과 같이 염불(念佛:아미타불의 명호를 부르며 부처의 상호, 공력을 억념하는 일)을 수행 방법으로 한다. 이러한 관음신앙을 반영한 불전을 관음전 또는 원통전이라 한다.

응진전(應眞殿)

석가모니의 16대 제자를 모시는 불전이며 한국 내 사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불전이다. 아집번뇌(我執煩惱)를 끊고 생사를 초월한 성자(聖者)를 응진(應眞), 무학(無學), 응공나한(應供羅漢)이라 하므로, 응진전을 나한전(羅漢殿), 응한전(應漢殿), 16나한전 등으로 불리우며 또한 영산전이라고도 한다. 석가모니불을 주불로 봉안하고 좌우에 석가의 존자인 16대 나한상을 봉안한다. 이 불전은 불교에 있어 수도승에 대한 신앙형태 나타내고 있다.

조사전(祖師殿)/국사전(國師殿)

불교 사찰에서 조사스님, 사찰의 창건주, 역대 주지스님 등 후세에 존경받는 승려들의 영정이나 위패를 안치한 건물이다. 사찰에 따라서 조당, 조사당, 국사전이라고도 한다. 조사는 불교에서 한 종파를 열었거나 그 종파의 법맥을 이은 선승을 가리키는데 선종 사찰에서 조사당을 세워 영정과 위패, 조각상 등을 모신 데서 비롯되었다. 조사전이 없는 절에서는 영각을 짓고, 국사를 배출한 절에서는 국사전을 짓기도 하였다. 조사전은 성현의 위패를 모신 사묘를 뒤에 두고 그 앞쪽에 처소를 배치시키는 후묘선학 배치법에 따라 사찰 안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잡고 있다.

약사전(藥師殿)

사찰에서 약사여래를 주불로 봉안하고 있는 법당인데 보통 동쪽을 향해 자리잡고 있다. 약사전에는 약사불이라고도 하는 약사여래를 중심으로 왼쪽에는 태양처럼 빛나는 지혜와 덕상을 지니고 중생을 교화하는 일광보살을, 오른쪽에는 달처럼 청정한 덕상을 갖추고 중생을 교화하는 월광보살을 배치한다.

약사여래는 유리처럼 맑고 깨끗한 동방의 정유리 세계를 다스리며 모든 병을 고쳐주는 위대한 부처인데, 보살로 수행할 때에 중생의 몸과 마음의 고통을 없애주기 위해 ‘약사십이대원’이라는 12가지 서원을 세웠다.

대개 약사여래는 왼손에 약병이나 약합을 들고 있으며, 후불탱화로는 동방약사 유리광 회상도를 걸어둔다. 법당 안에는 우물천장을 비천과 연꽃으로 꾸미고 단집을 만들었다.

미륵전(彌勒殿)/용화전(龍華殿)

사찰에서 미륵불을 주불로 봉안한 법당이다. 미륵전은 법상종 계통 사찰의 본전이다. 미래의 부처인 미륵불이 용화수 아래에서 성불하여 용화 세계를 이룬다는 뜻에서 용화전이라고도 하며, 미륵의 한문 의역인 자씨를 따서 자씨전이라고도 한다.

미래불인 미륵불은 아직 부처가 아니라는 뜻에서 ‘미륵보살’이라고도 부른다. 이 미륵보살이 새로운 불국토 용화 세계에서 중생을 교화하고 제도하는 것을 상징하는 법당이다. 미륵불의 협시보살로는 법화림보살과 대묘상보살 또는 묘향보살과 법륜보살을 배치하며, 후불탱화로는 미륵불이 용화수 아래에서 설법하여 중생들을 극락으로 이끌어주는 장면을 묘사한 용화회상도를 걸어둔다.

극락전(極樂殿)/무량수전(無量壽殿)

사찰에서 아미타불을 주불로 안치하고 있는 법당으로 아미타전 또는 무량수전이라고도 한다. 아미타불은 서방정토 극락 세계에 머물면서 중생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부처인데, 무량한 지혜와 무량한 덕, 무량한 수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량수불’이라고도 부른다.

극락정토의 본존인 아미타불을 중앙에 모시고, 자비로 중생의 괴로움을 구제한다는 관세음보살과 지혜와 광명의 빛으로 중생을 비추어주는 대세지보살을 협시로 안치한다. 또는 관세음보살과 함께 중생을 교화하고 구제하여 극락으로 인도하는 지장보살을 협시로 봉안하기도 한다.

본존불의 신앙 내용을 구체적으로 그린 불상 뒷벽의 후불탱화로는 극락정토를 묘사한 극락회상도, 극락구품탱화, 아미타탱화 등을 걸기도 한다. 주불을 모시는 불단 위에는 단집을 달고 여의주를 물고 있는 용이나 극락조를 새겨 넣었다.

천불전(千佛殿)

천불을 모시는 전각을 말하는데, 천불을 모시는 것은 전적으로 대승불교의 교의를 기반으로 한다. 원래 천불은 과거·현재·미래의 삼겁(三劫)에 각기 이 세상에 출현하는 부처님을 뜻하는데, 단순히 천불이라 할 때는 현겁(現劫)의 천불을 말한다. 석가모니불은 천불 가운데 제4불이 된다. 천불전에서는 천불에게 공양하여 그 가피력을 입기 위해 천불회라는 법회가 열린다.

천불전은 순천 선암사, 해남 대흥사 등이 유명하다. 특히 해남 대흥사에는 옥으로 만든 천분의 부처님이 모셔져 있다. 이 천불상은 윤후 등 10명이 6년에 걸쳐 경주에서 옥으로 조성하였다. 천불이 완성된 뒤 경주에서 바닷길을 통해 이 절로 옮기려다 풍랑을 만나 표류하다가 일본에 도착하였다. 그런데 일본인의 꿈에 이 천불이 나타나서 ‘우리는 지금 조선국 해남 대흥사로 가는 중이다’고 하여 다시 대흥사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전해온다.

千(千)은 많다는 의미이므로, 천불전은 무량(無量)의 부처님을 모시는 전각이다.

삼성각(三聖閣)

칠성각(七星閣)은 칠성광여래(북두칠성)를 모시는 전각이다. 민간에 유행하고 있는 인간수명을 관장하는 칠성을 일곱여래의 존상으로 모신 곳이다.

산신각은 우리 고유의 토속신인 산신을 모시는 전각이다. 산신을 모신 이유는 민간에서 각 산마다 산신이 있다는 신앙을 갖고 있는 데다 각 사찰마다 산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산을 주재하는 산신을 자연스럽게 불교로 수용함으로써 도입된 것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산신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사찰이 있는 바로 그 산의 산신을 모신다. 산신은 호랑이로 화신하기도 하는데, 수행자가 일정한 수행 단계에 오르면 산신이 호랑이로 변신해 수행자를 수호한다고 알려져 있다. 산에서 수행하는 스님들의 경우, 때에 따라 산세가 다르게 느껴질 때가 있다. 이때가 산신의 조화로 말미암은 것이라고도 말한다. 산신각의 위치는 법당의 구조와 별개로 위치하되 가장 높은 곳에 자리잡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대부분의 사찰에서 산신각을 두고 그 각 안에 흰 수염을 길게 늘어뜨린 산신과 호랑이의 탕화를 봉안하고 있다.

그리고 독성각(獨聖閣)은 말세 중생에게 복을 베푸는 나반존자(那畔尊者)를 봉안한 전각이다. 나반존자는 신통력이 뛰어난 제자였다. 하지만 나반존자는 그 신통력을 함부로 사용하다 부처님에게 야단맞고 미륵불이 사바세계로 하생할 때까지 천태산에서 중생을 구제하고 있는 자이다. 나반존자의 뛰어난 신통력에 기대어 복을 비는 별도의 기도처로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 나반존자는 독성각에 따로 모시지 않고 주로 산신각이나 삼성각에 탕화로 많이 모셔진다.

이처럼 세분의 성인, 곧 산신·칠성·나반존자를 함께 모신 각을 삼성각(三聖閣)이라 한다. 이 건물들을 전(殿)이라 하지 않고 각(閣)이라 하는 이유는 그것이 불교 본연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견해도 있다.

佛 불·보살을 모신 건축물을 전(殿)이라는 용어로 쓰고 있다면 민간신앙에서 중요시 되어오던 것을 불교가 수용한 산신·칠성·용왕 등이 모셔져 있는 건축물을 각(閣)이라 한다. 엄밀히 말하면 전이라 할 경우에는 불·보살이 모셔진 곳이고, 각이라 할 때에는 불·보살보다 낮은 단계의 성인을 모신 곳임을 알 수 있다.

탑(塔)

탑은 석가모니의 진신사리를 봉안하기 위한 축조물로 '탑과'(塔婆)를 줄인 말이며, 스투파라는 범어를 한자어로 음역한 것이다.

탑의 구조를 보면 우선 기단부, 탑신부, 상륜부의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기단부는 탑신을 올려놓는 기초이며 기단위에 몸돌과 지붕돌로 구성된 부분이 탑신부이다. 상륜부는 노반을 기초로 해서 구륜(九輪) 등 여러 가지 장식의 수직으로 꿰여 있는 부분을 말한다. 탑도 불전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요소들로 장식되는데 주로 불·보살과 신장 등이 주류를 이룬다.

기단부



일반적으로 탑의 기단부에는 십이신장상, 팔부중상, 사천왕상 등이 장식된다. 십이신장상은 보통 탑기단 중석의 각 면을 삼등분하고 한 구획에 하나씩 양각하는데, 인신수두(人身獸頭)의 모습에 범의를 걸치고 있는 형태가 많다. 십이신장상은 약사여래의 12대원(大願)을 수행하는 신장으로서 불법을 수호하는 기능을 한다.

팔부중상은 천,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후라가 등으로 구성되며, 불법을 지키는 신장들이다. 탑에서 볼 수 있는 신장 가운데서 그 이름이 무엇인지 확인이 가능한 것은

도상적 특징이 뚜렷한 가루라, 아수라, 야차뿐이다. 두 컷가에 새의 날개모양이 조각되어 있는 것이 가루라이며, 가루라가 용을 잡아먹는 조류의 왕이라는 인도의 신화 내용과 관련이 있다. 또한 세 얼굴과 여섯 개의 팔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수라이다. 때로 배에 귀면이 나타나기도 하며 악귀의 정복을 상징한다. 그리고 머리 위에 사자를 이고 가슴 밑에 밧줄을 감고 있는 것이 야차이다. 야차는 추악하고 잔인한 귀신의 모습으로 하늘을 날아다니며 사람을 괴롭힌다.

나머지 신장들은 일정한 도상이 없어 그 이름을 정확하게 알아내기가 곤란하다. 탑의 것은 아니지만 경주 석굴암내에 있는 팔부중상에는 가루라, 아수라, 야차 외에도 팔부중의 이름과 도상이 밝혀져 있다.

탑신부



탑의 한층은 몸돌과 지붕돌로 구성되며 몸돌에는 인왕상과 사천왕상, 화불, 보살상 등이 새겨진다. 금강역사라고도 불리는 인왕은 불법의 수호신으로 보통 양쪽에 위치한다. 이때 왼쪽의 것을 밀적금강(密迹金剛), 오른쪽의 것을 나라연금강(那羅延金剛)이라 한다. 사천왕상은 사천왕과 달리 손에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으며, 두 주먹을 불끈 쥐어 위압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상륜부

탑신부 위쪽부터 상륜부가 전개되는데, 상륜이라는 말은 수연(水烟) 밑에 있는 구중원륜(九重圓輪) 또는 보륜(寶輪)의 다른 이름이다. 현존하는 탑 가운데 상륜부가 조상 당시의 형태대로 남아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다.

상륜부는 아래로부터 노반, 복발, 양화, 보륜, 보개, 수연, 용차, 보주의 순서로 철심에 꿰여 올려져 있다. 수연 아래에 있는 테 모양의 장식을 특별히 상륜이라 하는 것은 표상이 높이 솟았기 때문이며, 또한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기 때문이다. 상륜부의 세부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노반 : 상륜부의 기초가 되는 방형의 부재를 말하며 승로반(承露盤)을 줄여서 이르는 말이다. 한(漢)나라 무제(武帝)가 단 이슬을 받기 위해 건장궁(建章宮)에 만들어 두었던 동반(銅盤)을 노반이라 한다.
- 복발 : 노반 위에 발우 [鉢] 를 얹어놓은 것 같은 모양을 말한다. 인도 반구형 탑신의 흔적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으며 복발은 노반과 더불어 상륜부의 기초가 된다.

- 양화 : 복발 위에 꽃잎을 위로 향하여 벌려놓은 듯한 부분이다.
- 보륜 : 상륜의 중심부분이다. 노반위로 양화와 보개의 중간에 있는 바퀴모양의 테 장식이다.
- 보개 : 보륜과 수연사이에 있는 단집모양의 부분이다. 보개는 모든 개념과 형식을 초월한 열반의 경지를 나타낸다.
- 수연 : 보개 위에 올려져 있는 불꽃모양의 장식품을 말한다. 예로부터 장인들이 화재를 꺼리는 관습 때문에 특히 불에 인연이 있는 이름을 피하여 수연이라 했다.
- 보주·용차 : 상륜부 꼭대기에 있는 것이 보주이다. 보주는 불가사의한 힘을 지닌 마니주로서 일명 여의주라 한다. 여의주는 일정한 형상이 없으며, 맑고 사무치고 가볍고 묘하여 모든 천하의 물건들이 환히 나타나며, 능히 어떠한 병이라도 제거 한다. 용차는 보주와 수연사이에 있는 구슬모양의 장식이다.

부처님의 진신(眞身)을 모시고 있는 탑이 처음부터 불교신앙의 중심체였던 만큼, 불교도들은 부처님을 옹위하고 그의 세계를 장엄케 하기 위하여 탑의 조성에 정성을 쏟았다. 기단과 탑신부에 사천왕상과 팔부중상, 십이신장상을 비롯한 불국의 수호신들을 새겨놓고, 그들로 하여금 탑 속의 부처님과 그의 세계를 외호케 하였으며, 오묘하고 신비한 장식물들을 상륜부에 배풀어 모든 개념과 형식을 초월한 부처님의 경지를 표상하였던 것이다.

탑의 층수

우리나라의 불탑을 살펴보면 2·4·6·8…… 등 우수(偶數)로 된 층급(層級)은 찾아볼

수 없고, 대부분 3·5·7·9…… 등의 기수(奇數)로만 이루어져 있다. 탑의 층수는 불교 교리나 사상에 바탕을 둔 것이라기보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고대 동양의 우주관이나 음양 오행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다.

고대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식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신앙의 주류는 천인합일사상과 음양오행사상이었다. 그 사상 체계는 하늘과 사람의 상호 감응하는 이치를 통하여 천의를 인간사에 적용시키는 것이었다. 따라서 옛사람들은 사람은 천지 자연의 원리와 법칙에 참여하고 그것을 실천해야 한다고 믿었다. 그들은 인간이 천지 자연의 법칙을 체득하면 천지와 더불어 지위를 나란히 할 수 있으며 인간 자신이 그 원리와 법칙을 스스로 사용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하늘의 뜻을 인간 생활에 적용시키려고 노력하였다. 그런 차원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했던 방법 중의 하나가 우주의 원리에 응하는 수를 유·무형의 대상에 적용하는 것이었다.

우주의 원리에 응하는 도상화된 수를 생활속에 적용한 예는 건축물의 구조 속에서도 찾을 수 있다. 사찰 건물은 아니지만 창덕궁 대조전처럼 정방형을 아홉 개의 방형으로 균등분할한 뒤, 그 중심위치인 5의 자리에 임금의 침전을 마련한 것은 『주역』에서 말하는 천자(天子)의 자리인 구오(九五)에 응한 것이다. 또 경복궁 광화문이나 근정문에서 궁궐 전각의 칸수를 3·5·7……의 기수로 하거나 대문을 삼문(三門) 형식으로 조성한 것은 삼재와 오행 등을 바탕으로 한 길상관의 반영이라 볼 수 있다. 기수로 된 탑의 층급도 이러한 관념이 조탑(造塔)의 의지와 일부로 작용한 결과이다.

끝으로 구층탑에 얽힌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를 소개한다. 『삼국유사』 「탑상」을 보면, 선덕왕이 주변의 이민족에게 신령의 힘으로 항복을 받는다는 취지로 황룡사에 구층탑을 건립하였다고 한다. 이때 제1층은 일본, 제2층은 중국, 제3층은 오월(吳越), 제4층은 탁라(托羅; 탐라), 제5층은 응유(應遊), 제6층은 말갈, 제7층은 단국(丹國; 거란), 제8층은 여적(女狄; 여진), 제9층은 예맥(穢貊)이라 하였다. 탑의 각 층이 주변 이민족을 상징하도록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부도(浮屠)

불교 승려의 사리나 유골을 넣은 묘탑이다. 부도의 어원은 불타를 뜻하는 붓다(Buddha) 또는 불탑을 뜻하는 스투파(stupa)에서 유래되었다고 전해진다. 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어온 뒤 주검을 화장하여 그 유골을 거두는 불교식 장례법이 생겨남에 따라 부도를 세우기 시작하였다.

특히, 통일신라시대에 중국 당나라에서 선종이 들어온 뒤 승려의 지위가 높아지고 스승으로부터 제자에게로 법맥이 이어지면서, 불상보다는 조사들의 사리와 유골을 담은 표탑이 예배 대상이 되어 많은 부도가 건립되었다.

석가모니의 진신사리와 불상 등을 안치한 불탑은 가람의 중심이 되는 곳에 세운 데 비해, 승탑인 부도는 사찰 주변에 석비와 함께 단층으로 건립하였으며 고려시대에는 석등과 함께 조성하였다. 기단과 탑신, 옥개석이 8각형으로 된 팔각원당형 부도와 형태가 단순한 종 모양의 석종형 부도가 있다

2. 구룡사(龜龍寺)

위 치



◀ 구룡사 전경, 소초면 학곡리 소재

소초면 학곡리 1029번지에 위치한 조계종 사찰로서, 강원도지방유형문화재 제24호인 대웅전과 제145호인 보광루를 보유한 치악산의 대표적인 사찰이다.

창 건 및 연 혁

신라 문무왕 6년(666)에 의상대사가 창건한 절로서 대웅전 자리에 아홉마리의 용이 살고 있는 연못을 메우고 사찰을 창건하여 구룡사(九龍寺)라 하였으나, 조선 중기에 거북바위 설화와 관련하여 현재의 명칭인 구룡사(龜龍寺)로 개칭하였다고 한다. 한편 [치악산 구룡사사적(雉岳山龜龍寺事蹟)]에 의하면 신라말의 고승 도선국사에 의해 창건되었다고 한다. 현재 구룡사의 역사는 유일한 자료인 寺中기록에 의지할 수 있는데 숙종 32년(1706)에 중건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구룡사의 모든 건물은 숙종 이후에 건립된 것으로 보여진다. 그밖에 참고할 자료는 없으며 근자에 이루어진 중수(重修)에 대해서는 태허당(太虛堂) 종영사(宗泳師)의 공적을 들 수 있다. 종영사는 황폐되었던 사찰 전모를 새로 지어 1966년에 보광루(普光樓)를 해체 복원하였고 1968년에는 심검당(尋劍堂) 및 요사(寮舍)를 보수하였다. 1971년에는 삼성각(三聖閣)을 보수하였으며, 1986년에 주지 정휴(正休)에 의해 사찰이 말끔히 단장되었다.

유 래

옛날에 무착대사인지 의상조사인지는 모르겠으나 학 같은 늙은 스님 한 분이 원주지방에 찾아와 절터를 두루 찾다가 치악산 구룡골에 이르렀다. 스님이 사방을 살펴보니 동쪽으로는 주봉인 비로봉이 솟아있고 다시 천지봉의 낙맥이 앞을 가로지르며, 계곡의 경치 또한 아름다웠다. 그런데 대웅전을 짓자면 연못을 메워야 하는데 그 큰 연못에는 아홉마리의 용이 살았다. 용을 내쫓으려고 하는 말을 용들이 듣고는 대사에게 내기를 걸었다. 대사와 서로 내기를 해서 이기는 쪽이 마음대로 하자는 것이었다.

용들은 연못에서 날아 하늘로 치솟더니 뇌성벽력과 함께 우박 같은 비를 쏟아놓았다. 이 바람에 근처의 산들은 삼시간에 물에 잠기고 대사 또한 물 속에 빠져 죽는가 했으나 대사는 태연하게 앉았다가 비로봉과 천지봉 사이에 배로 건너 매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한참 동안 비를 퍼부은 용들은 이만하면 대사가 물 속의 귀신이 되었겠다 생각하고는 비를 거두고 내려왔다. 그러나 뜻밖에도 대사는 배 위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홉 마리의 용들이 다 내려오자 대사는 “너희들의 재주가 고작 그것뿐이냐 이제 내가 조화를 부릴 것인 즉 너희들은 눈을 크게 뜨고 잘 지켜보아라.” 하고 부적을 한 장 그려 연못 속에 넣었다. 얼마 안 있어 연못에서는 더운 김이 무럭무럭 오르며 큰 연못의 물이 부글부글 끓기 시작했다. 물 속에서 뜨거움을 참다 못한 용들은 뛰쳐나와 한 달음에 동해 바다로 달아나고 말았다. 그런데 이 아홉 마리의 용 가운데 한 마리의 용이 눈이 멀어서 미처 달아나지 못하고 근처에 있는 조그만 연못으로 옮겨 앉았다. 용들이 달아나자 대사는 못을 메우고 지금의 구룡사 대웅전을 지었다.

한편 뜨거운 물에 쫓겨 달아나던 용들은 얼마다 다급했던지 구룡사 앞산을 여덟 개로 쪼개놓으며 도망했다 하는데 지금도 구룡사에서 동해를 향한 능선은 여덟 개의 골이 있으며 이 때 미처 도망하지 못한 눈먼 한 마리의 용은 구룡사 옆에 있는 용소에서 지난 왜정 때까지 살다가 그해 여름 장마 때 하늘로 올라갔다고 한다.

또한 지금 아홉 구(九)자 대신 거북 구(龜)자를 쓰는데 이 글자를 바꾸게 된 연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얘기도 전해지고 있다.

본래 구룡사는 스님들의 수양도장으로 세워졌으나 오랜 세월을 두고 흥망성쇠에 따른 곡적이 많았다. 조선조에 들어서면서 치악산에서 나는 산나물은 대부분 궁중에서 쓰게 되어 구룡사 주지스님이 공납의 책임자 역할까지 하게 되었고, 좋거나 나쁘거나 구룡사 스님의 검사 하나로 통과되는지라 인근 사람들은 나물 값을 제대로 받기 위해 별도로 뇌물을 받치기도 했다. 견물생심이라 아무리 부처님 같은 스님이라 할지라도 여기엔 욕심이 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리하여 구룡사는 물질적으로 풍성하기는 하였으나 정신도장으로서는 몰락의 길을 걸었다. 이럴 즈음 한 스님이 찾아와 몰락한 이 절을 보고 개탄하면서 이 절이 흥하지 못하는 것은 절로 들어오는 길 입구에 있는 거북바위 때문이니 그 거북바위를 쪼개 없애면 좋을 것이라고 했다. 절에서는 그 스님의 말을 믿어 거북바위를 쪼개었지만 어찌 된 일인지 그 후부터 찾아오는 신도는 더욱 적어지고 거찰(巨刹)로서의 명성은 점차 줄어들었다. 급기야 절문을 닫아야할 처지에 이르렀다. 이런 어느 날 도승 한 분이 또 찾아와서 절이 이렇게 몰락하는 이유는 이름이 맞지 않아서라고 하고 “본시 이 절은 절 입구를 지키고 있던 거북바위가 절의 운을 지켜왔는데 누가 그 바위를 동강으로 내 혈맥을 끊어버렸으니 운이 막힌 것이요” 하며 거북이 이미 죽었지만 다시 살린다는 뜻에서 절의 이름을 아홉 구(九)자 대신 거북 구(龜)자를 쓰라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지금 현판에 새겨진 대로 치악산 구룡사(龜龍寺)로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대웅전

대웅전은 1971년 12월 16일에 강원도유형문화재 제24호로 지정되었다. 조선 후기에 건립한 것으로 정면 3칸, 측면 2칸이며 자연석으로 쌓은 축대 위에 세워져 있다. 전면으로 보아 기둥 위에 공포를 두고 주심포 사이에도 공간포(空間包)를 2조(組)씩 배치한 다포계양식(多包系樣式)이며, 팔작(八作)지붕으로 되어 있다. 공포의 외부 제공(諸工)은 양설형(仰舌形)이 중첩되었고 양설(仰舌) 윗몸에는 각각 연꽃을 조각하여 화려하게 장식하였으며, 내부 제공은 하나로 연결하여 당초(唐草)무늬를 초각(草刻)하였다. 특히 불상 위

에 있는 보개(寶蓋)의 전면 중앙칸은 조금 넓고 사분합문(四分閤門)을 달았는데, 문짝 가운데 중앙 2짝은 빗살문, 나머지 2짝은 정자(井字)살문이며 좌우 양간(兩間)에는 삼분합정자(三分閤 井字)살문을 달았다.



▲ 화재 전 모습



▲ 화재 후 복원된 모습



▲ 닷 집



▲ 풍 경

천장의 중앙부는 우물천장을, 둘레에는 빗천장을 가설하였으며, 연꽃과 봉황(鳳凰), 운문(雲紋), 비천상(飛天像) 등을 채화(彩畵)하여 금단청(錦丹青)과 함께 매우 화려하고 장엄하다. 지붕은 한식 골기wai며 용마루에 치미가 붙어 있고 네 귀퉁이에 풍경이 달려있다. 조선후기의 건물이나 장중한 형태가 주의를 끈다. 이 불전은 공포 내 외부의 장식적인 조각솜씨 및 구조수법 등으로 보아 1900년대 초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며 1976년에 보수 단청되었다. 대웅전 내의 닷집은 이곳 주변에서 보기 드문 화려하고도 장중한 것이며, 대웅전 건물자체도 이 일대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조선후기의 건물이었다.

안타깝게도 지난 2003년 9월 30일에 화재로 인하여 대웅전이 전소되었으며, 다음해인 2004년 11월에 복원되었다.

일주문

원래의 구룡사 일주문은 너무 넓고 기둥이 부패하여 2002년에 재건되었으며, 재건된 위치는 원래의 위치에서 좌측으로 약간 변경되었다.

구룡사 일주문에는 “圓通門(원통문)”이란 현판이 걸려있고 주련(柱聯)은 “歷千劫而不



▲ 재건 전의 일주문



▲ 재건 후의 일주문

古(역천겁이불고) 恒萬歲以長今(항만세이장금)”라 적혀있다. “圓通”이란 말은 “○通”이라고도 쓰며, “둥글게 통한다” 즉, 모든 이치와 법을 깨달아 불교에서의 최고 경지인 “성불(成佛)”을 의미한다. 또한 주련(柱聯)의 “歷千劫而不古(역천겁이불고) 恒萬歲以長今(항만세이장금)”는 “천겁이 지나더라도 낡음이 없고 만년동안 항상 오늘과 같아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보광루



▲ 보광루 전경, 강원도유형문화재 제145호

구룡사는 치악산 능선 밑의 급경사지에 동향(東向)의 배치를 하고 있으며, 조선중기 이후 산지에 건립된 사찰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구룡사의 출입은 사천왕문(四天王門)을 통과하여 보광루 아랫부분의 트여 있는 가운데 칸을 통로로 삼아 대웅전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누하진입방식(樓下進入方式)인데, 이러한 방식은 경사진 지형에 조성된 사찰에서 많이 볼 수 있다.

보광루는 구룡사의 가람배치에서 불이문(不二門)의 성격을 가진 건물로 공간의 위계(位階)를 구분함과 동시에 누각 아래를 통한 진입으로 전이공간(轉移空間) 역할을 한다. 정면 5칸, 측면 2칸의 익공집으로 홑처마 맞배지붕의 형태를 하고 있으며, 자연석 기단 위에 자연적으로 초석을 놓고 그 위에 배흘림이 있는 튼실한 원형기둥을 세워 아래층을 구성하고 있다. 출입통로로 사용되는 가운데 1칸을 제외한 나머지 옆칸은 판벽으로 막아 창고 공간으로 쓰고 있는데, 창고 안쪽으로도 기둥을 세워 놓았으며, 각 칸마다 두 줄씩

가로, 세로로 보를 놓았다. 누각층은 대웅전 앞의 마당공간을 향해 벽체가 없이 개방시켰으나 나머지 3면을 판벽으로 처리하였고, 정면의 각 칸 사이에는 2짝 판문으로 달았다. 기둥은 1층보다 빈약하고 배흘림이 없는 원형기둥을 사용하였고, 이익공형식으로 연꽃과 연꽃 봉우리를 장식하였으며, 기둥머리에는 봉황머리를 장식하였다. 누마루는 우물마루이며, 천장은 우물반자이다.

보광루는 현재 강원도유형문화재 제145호로 지정되어있다.

기타 건축물



▲ 범종각



▲ 사천왕문



▲ 천불전



▲ 삼성각



▲ 응진전



▲ 관음전



▲ 조사전



▲ 부도



▲ 삼층탑

2. 상원사(上院寺)

위 치



◀ 상원사 전경,
신림면 성남리 해발 1,100m 소재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 성남2리 산171번지에 위치한 상원사는 치악산이라는 산 이름을 낳게 한 '뽕과 구렁이의 전설'이 어려 있는 유서 깊은 고찰이다. 신라 때 의상대사가 창건한 상원사는 치악산 남대봉(1,182m) 바로 아래의 해발 1,100m 고지에 자리해 있어 자

연 환경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대웅전 앞에 있는 쌍탑은 신라 석탑의 양식을 따르고 있으며 지방유형문화재 제25호로 지정되었다. 찾길이 끊어지는 성남 마을에서 절까지의 3km 구간은 맑은 계곡이 비경을 이룬다.

창건 및 연혁

신라 문무왕 때 의상대사가 창건하였다고도 하고 신라말 경순왕의 왕사였던 무착선사가 당나라에서 귀국하여 오대산 상원사에서 수도하던 중 문수보살에게 기도하여 관법(觀法)으로 창건하였다고도 한다.

고려 말에 나옹이 중창하였고, 월봉(月峯), 위학(偉學), 정암(靜巖), 해봉(海峯), 삼공(三空), 축념(竺念) 등의 선사들이 이곳에서 수도하였으며, 조선시대의 여러 왕들은 이 절에서 국태민안(國泰民安)을 기도하게 하였다. 6·25전쟁 때 전소되어 폐허화되었던 것을 1968년 당시 주지 송문영법사와 의성보살에 의하여 복구되었다.

현존하는 당우로는 1984년 6월 2일에 문화재자료 제18호로 지정된 대웅전과 심우당(尋牛堂), 심검당(尋劍堂), 범종각(梵鐘閣), 산신각(山神閣) 등이 있으며, 대웅전은 정면 3칸(8.4m) 측면 2칸(5.3m)의 겹처마 팔작(八作)지붕에 다포(多包)집이다. 법당의 불상은 새로 봉안한 것이고, 석가래와 기둥 등은 모두 정연하며 두공부에 용두(龍頭)조각을 배치하여 주목을 끈다. 근년의 건축물로는 드물게 보이는 질서 있는 건축물이다.

대웅전을 중심으로 나란히 쌍탑이 있는데, 이러한 쌍탑이 등장하는 시기는 대체적으로 삼국통일 이후로서 왕성한 국력에 의하여 전국 도처에 유행하게 되었다. 이 석탑은 신라 석탑의 정형을 따른 2층 기단 위에 3층 옥개를 형성하였으며, 상부 상륜부는 둥글게 연꽃 봉오리 모양을 새겨 일반 탑에서 보기 어려운 양식을 나타내고 있다.

대웅전의 좌측 탑의 바로 앞에는 화염문(火焰紋)을 보이는 불상광배와 연화대석(蓮華臺石)이 남아 있어 본래 석불이 있었음을 추정케 하나 현재 발견되지는 않았다. 이밖에도 절 뒤쪽 2백m 지점에는 높이 1m의 지극히 단조로우나 매우 오래된 부도가 있다.

유 래

상원사의 유래는 앞에서 이미 언급하였으므로, 여기서는 1921년 해남 대흥사에서 발간된 “범해선사 문집” 중의 ‘자웅종기(雌雄鐘記) 원주얼 9호’에서 발췌된 내용을 인용한다.

원주 치악산에 한 절이 있어 하루는 불존(佛尊) 수좌(首座)가 법당 뒤를 배회하고 있었는데, 큰 구렁이 한 마리가 꿩을 감싸고 있었고, 구렁이와 꿩이 서로를 삼키려 하고 있었다. 아, 이렇듯 서로 물고 버티며 놓지 않는 다투어 있었었는데, 둘이 서로 싸움하는 사이에 어부지리(漁父之利)가 가까이에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

불존 수좌가 지팡이로 구렁이를 풀어 꿩을 구하니, 이날 이경(二更, 밤 10시경)에 하얀 형상을 한 노인이 와서 전등(剪燈)의 왼쪽에 앉아 쇠붙이가 부딪치는 것 같은 소리를 내며 말하기를, “나는 이내 이 절의 종을 주조하는 화주승(化主僧)이다. 사망에서 시주를 모아 자선(慈善)을 베풀고자 이 큰 종을 주조하였으나 종소리가 맑지 못하여 도리어 죄업(罪業)에 대한 응보(應報)를 받았다. 살리고 죽이는 것은 구렁이의 뜻이었고, 지금에는 재앙과 액운이 헤아릴 수 없다. 오늘 다행히 꿩 한 마리를 얻어 점심으로 먹으려 하였다. 그대의 자비로 이와 같이 한번 굶주렸으니 반드시 그대를 대신으로 먹어야겠다. 그대의 뜻은 어떠한가. 만약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나를 위해 종을 쳐서 소리를 내면 이러한 추한 응보를 면할 것이니, 이것 또한 자비이다.” 하고 말이 끝나자 홀연히 떠나갔다.

의심스러워 괴상하게 여기는 사이에 앞에 있는 울리지 않던 종이 천천히 하늘 밖으로 소리가 울려 퍼졌다. 어둠 속에서 한 쌍의 꿩을 보니 부리를 사용하여 종을 울렸다. 한번은 소리가 크고 한 번은 소리가 작아 큰 소리와 작은 소리가 마디가 있었고 한 번은 암컷의 소리였고 한 번은 수컷의 소리여서 암컷과 수컷의 차례가 있었다. 일종(一宗)이 죽고 일종(一宗)이 살았으니 죽고 사는 것에는 표지(標識)가 있으며 이것이 불문(佛門)에서 예악(禮樂)을 짓는 법이다.

동틀 무렵에 노인이 다시 와서 말하기를, “나는 종이 울리는 힘을 입어 엮어땀던 몸에서 벗어나 승천한다.”고 하였다. 해가 솟아 밝아올 무렵에 가서 보니 금구렁이 한 마리가 남쪽 처마 아래에 죽어 있으므로 승(僧)이 죽었을 때의 예와 같이 장사지냈다.

아, 꿩은 자기의 몸을 희생하여 목숨을 구해준 승(僧)의 은혜를 보답하고 승(僧)은 꿩의 목숨을 구해 준 것으로 인하여 목숨을 구하는 보답을 받았다. 구렁이는 승(僧)으로 인하여 생명을 아껴 꿩을 살려 주었고, 꿩으로 인하여 쌓였던 억겁(億劫)의 고통을 벗었으니 이것이 일거삼득(一擧三得)이다. 사물은 비록 같지 않았으나 세상에서 뛰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치악(雉樂)으로써 그 산의 이름으로 하고 종을 쳤던 소리로써 온 나라의 사찰에 퍼졌다고 한다. (자웅종기에는 雉岳이 雉樂으로 되어 있음.)

대응전

상원사 경내의 대응전은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18호이다. 가람배치를 보면 대응전을 중심으로 그 앞에 2기의 삼층석탑이 있고 광장 끝에 종각이 있으며 전체적으로 산지를 이용하고 있다. 대응전을 중심으로 쌍탑을 두는 양식은 대체로 삼국통일 이후에 등장하였고 왕성한 국력에 의하여 전국 도처에 유행하게 되었다고 한다.



◀ 상원사 대웅전 전경,
강원도문화재자료 제18호

대웅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으로 단층의 팔작지붕이며, 대웅전 좌측 뒷면에 주지실인 심우당이 있고 요사는 좌측 낮은 지대에 있다. 그리고 요사채 좌측 뒷면 높은 지대에 산신각이 있다. 현재의 위치로는 1988년에 이전되어 중창된 것이다. 기단은 60cm의 높이에 2단의 잔다듬과 그 위에 잘 치석된 갑석(甲石)을 사용하였고 기둥은 원형 초석 위에 민흘림 원주(圓柱)를 사용하였다. 전면 3칸에는 주간에 4짝의 교전문과 2짝씩의 교창(交窓)을 달았으며, 공포는 주간 사이에 2개의 공간포 2개를 배치한 다포집으로 중앙 2개의 기둥 위에는 용두를 조각하여 장식하였다. 겹처마에 내부바닥은 마루널 바닥으로 천장은 2중 우물천장이다.

삼층석탑(쌍탑)



▲ 상원사 삼층석탑 (쌍탑) 강원도유형문화재 제25호

상원사 삼층석탑은 많은 부분이 훼손되어 있었으나 1964년에 거의 완전할 정도로 보수하여 보존되고 있고, 현재 강원도유형문화재 제25호로 지정되어 있다. 삼층석탑은 대웅전 앞에 쌍탑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그 형식은 거의 동일하다. 높이는 2.9m이며 기단부, 탑신부, 상륜부로 되어 있고 연대는 대략 고려 전반기로 추정된다. 몇 장의 지대석 위에 2중 기단을 구성하였고, 하대중석에는 우주(宇柱)를 모각하였으며 4매의 하대 갑석상면에는 2단의 중석받침이 있다. 2매로 된 상대갑석 위에는 탑신 괴임이 있고 낙수면은 완만하다. 3층의 탑신부는 체감율이 적고 옥개석의 낙수면은 경사가 급한 편이다. 옥개석 받침은 모두 1단씩으로 많이 생략되어 비둔한 느낌을 주고 기단부에 비해 이 탑신부의 비율이 너무 적어 왜소해 보일 뿐만 아니라 균형을 잃은 듯 보인다. 상륜부는 동탑이 보개(寶蓋)·수연(水煙)의 일부, 서탑이 노반(露盤)·보륜(寶輪)의 일부가 남아 있다. 1964년 탑의 보수 당시 탑신에서 금불동 4구가 발견되었는데 관음보살좌상, 인왕상(仁王像), 아미타여래입상, 석가여래입상이었다고 한다. 탑에서 주목되는 것은 석탑에서 옥개받침 없이 사형(斜形)으로 처리된 점이며, 이러한 양식은 고려전기에서도 후반부에 나타나는 특징이다.

광배(光背)



◀ 상원사 광배

광배란 불보살(佛菩薩)의 후광(後光)을 말하는 것으로 불교조각이나 회화에 흔히 표현된다. 부처의 광명은 색광(色光)과 심광(心光)으로 나뉜다. 색광은 부처의 몸에서 밖을 향해 나오는 빛, 즉 신광(身光)을 말하며, 심광은 부처에게 있는 지덕원만(智德圓滿)의 빛, 즉 지혜광(智慧光)을 뜻한다.

상원사 광배(光背)는 현재 상원사 경내 동탑 앞에 놓여 있다. 불상은 오래 전에 없어졌으며 현재 광배와 대좌(臺座)의 하대석 일부만 남아있다. 통일신라시대에 조성되었으며 재질은 화강암이다. 광배는 주형거신광(舟形擧身光)인데, 2조 융기선(隆起線)으로 두광(頭光)과 신광(身光)을 그렸으며 두광 중심부에 원을 새기고 그 주위에 8장의 연꽃을 돌렸다. 또 당초문(唐草文)을 조각하고 두광과 신광 외부에는 사실적으로 화염문을 양각하였다. 그러나 신광 부분은 파손되었고 우측의 대부분이 망실되었다. 대좌는 상대석과 중대석이 없으며 하대석의 일부가 남아 8각형의 대좌였음을 짐작케하며 복판복련(複瓣伏蓮)이 8엽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용천(龍泉)



상원사는 치악산 높은 능선에서 동쪽으로 약간 내려간 해발 천미터 되는 높은 지대의 반석위에 세운 절인데 절터로서는 더할 수 없이 좋은 곳이나 물을 구할 수 없는 것이 흠이었다. 절을 창건한 무착대사는 자기 나름의 불심과 신념을 가지고 석장으로 바위틈을 찌르니 그 자리에서 물이 솟아 올랐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으며, 지금까지도 이 물만으로도 충분하여 여름에도 손이 시리도록 차갑다.

용마암의 전설

치악산 상원사에서 동남간으로 제천 땅 백련사라는 절이 있는데 이 절의 주지스님은 여자를 좋아했다. 그는 스님이면서도 아내를 두고 세속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 스님은 치악산 남대봉 기슭에 있는 상원사의 주지도 겸했다. 이 스님은 백련사와 상원사를 왕래하며 두 절의 주지 스님으로 있었는데 불제자로서 마땅히 불도에만 정신을 쏟아야 할 터인데도 여자를 너무 좋아하여 백련사에는 본처를 두고 상원사에도 소실을 얻어 재

미를 보고 있었다. 주지 스님이 상원사에 가는 날이 찾아지자 백련사에 있는 본처는 몰래 남편의 뒷조사를 해봤다. 그랬더니 상원사에 젊은 소실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무리 스님과 몰래 살고 있는 처지이기도 하나 본부인은 참고 살아가기가 어려웠다.

이 스님은 백련사에서 상원사를 용마(龍馬)로 왕래했다. 용마는 번개처럼 잘 달리는 말이었다. 슬며시 화가 난 본처는 내놓고 싸울 수도 없어 속으로만 앓고 있다가 스님이 타고 다니는 용마를 굶겨 죽이기로 했다.

“저 놈의 말만 없으면 스님은 첩이 있는 상원사를 자주 가지 못할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떠오르자 되도록 말에게 풀을 적게 먹이기로 했다. 한번 뛰었다 하면 천리도 마다 않는 용마였지만 본처의 계획적인 음모로 어느 날 스님을 태우고 상원사로 달리는데 도무지 기운이 나지 않았다. 속 모르는 스님은 용마에게 채찍질만 호되게 내리쳤고 주인의 채찍을 맞은 용마는 용을 썬 겨우 상원사까지 이르러 그만 마지막 바위에 턱을 대고 털썩 거꾸러지고 말았다. 이 바람에 등에 올라탔던 스님은 말잔등에서 굴러 떨어지면서 바위에 손을 짚었고 말은 앞발을 디딘 채 그 바위에 발자국을 남기고 벼랑으로 떨어졌다. 그 후 가까스로 올라온 스님은 이것이 큰 부인의 소행이었음을 알고 소실과 상원사에서 여생을 보냈다고 한다.

지금도 그 때 스님의 손자국과 용마의 발자국이 선명히 남아 있고 말이 떨어지며 흘렀다는 핏자국이 또한 남아있어 후세 사람들은 이 바위를 “용마바위”라고 부른다.

기타 건축물



▲ 일주문



▲ 범종각



▲ 산신각



▲ 독성각

상원사 중수비



◀ 상원사 중수비, 원주시 무실동 대성학원 향토관 소장

1932년에 건립된 상원사 중수비는 현재 원주시 무실동 산123번지 대성학원 향토관에 소장되어 있다. 재료가 나무로 되어 있는 희귀한 사적비(事蹟碑)로 상단에는 '상원사적(上院寺蹟)'이라는 해서(楷書)로 쓴 글자가 있고, 우측 첫 줄 위에서 아래로는 '치악산상원사중수기(稚岳山上院寺重修記)'라고 써여 있다. 앞면은 12행으로 1행은 40자이며, 뒷면은 상원사가 중건될 때 시주한 사람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이 목비(木碑)의 글은 이인상(李寅相)이 지었고, 이태회(李泰會)가 새겼다. 『치악산상원사중수기』의 내용에 대한 번역은 다음과 같다.

산은 높고 물은 맑아 천하에 제일이다. 우리 조선에서 제일인 까닭에 중국 사람들이 지금도 '고려'라고 칭하는 것이 이러한 까닭이다. 일찍이 그 대략을 논할 때 즉, 북쪽으로는 금강산과 오대산의 웅위(雄偉)함이 있고 남으로는 방장(方丈)과 두류(頭流)의 장관이 있다. 학성(鶴城)의 동쪽에 흡사 용과 호랑이가 틀고 앉은 모습과 같은 산이 있어 치악(雉岳)이라 하니 5백년 전성기 때에 조정에서 특별히 복국우세(福國佑世)로 동악단(東岳壇)에 매년 월일(月日)에 수령(守令)·방백(方伯)으로 하여금 제관(祭官)을 정하여 제사를 올리던 곳이다. 산의 정상에 상원사(上院寺)가 있으니 즉 신라 경순왕의 왕사(王師)인 무착대사(无着大師)가 창건하였다. 산의 명승(名勝)과 절의 오래됨이 이로부터이니 즉 사람들이 말하고 이른 것은 다시 굳더더기의 말이 필요하지 않다. 마멸된 부분... 이런 관계로 처음 창건된 이래로 자주 일곱 번을 중수(重修)하였다. 산의 영험으로 인연하여 고명선덕(高明禪德)이 여기에 머물면서 이에 따라 무너진 것을 고치고 수습하여 천고에 조사(祖師)의 자취는 계속 연이어져 황폐되지 아니하니 이것 또한 대웅씨(大雄氏, 부처)의 큰 신통스러운 조화의 자취가 아니겠는가.

매양 중건(重建)할 때에 밝은 신령스러움이 나타났는데, 이번에도 축념선사(竺念禪師)의 일곱 번째 세움에도 역시 뜰에 있는 탑의 뇌굉(雷轟)이 부딪친 곳에 순금(純金) 부처 1위를 받들고 나오니 그 신이한 조화의 도움이 이와 같이 명명하다. 아. 인연화복이 축념선사가 내주(來住)한 이때에 있었고 마침 절이 폐하였으나 이와 같은 금불상의 신이한 징조로 인하여 많은 뜻 있는 이를 모아 중건에 모을 수 있었다. 이 아름답고 빛나는 경신(更新)에 동참하는 화주들의 보시로 하여금 부처님의 인연을 심고 여래(如來)가 사람으로 하여금 끝없이 축념선사를 돕게 하였다.

나에게 기문(記文)을 청하나 나는 본래 문사(文辭)에 능하지 못함에도 깊이 선사(禪師)의 믿음과 발원에 느낀 바가 있어 거친 글을 엮어 그 전말(顛末)을 기록한다. 화주의 보시와 그 꽃다운 이름을 원편에 열록(列錄)하니 천년에 불후(不朽)할 공적(功績)이다. 불기(佛紀) 2960년 임신(壬申) 8월(月) 일에 창강거사(蒼岡居士) 이인상(李寅相)이 기록하다.

4. 입석사(立石寺)

위치 및 유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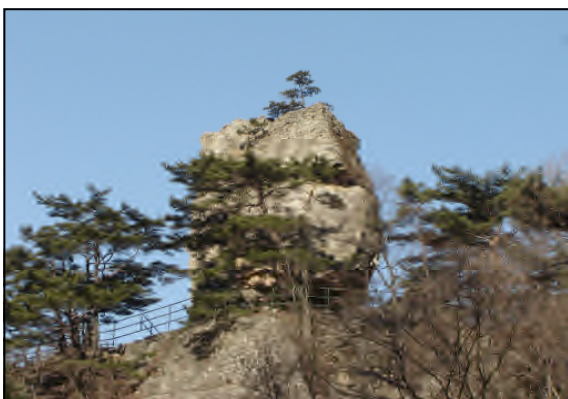
▲입석사 전경, 소초면 홍양리 소재



▲ 입석사 대웅전

입석사는 윗황골 동쪽 입석골, 치악산 능성 밑에 있는 조계종 사찰이다. 입석사의 이름은 입석대에서 따온 것으로 생각된다. 절의 자세한 창건연대는 알 수 없으나 신라시대 의상대사가 이곳 절 뒤 토굴에서 수도하였다는 전설이 있다. 원래 입석사는 입석대에서 원주쪽으로 1km정도 떨어진 곳에 암자로 있었는데 현재 위치에 신축한 것이라고 한다. 옛 절터에 있던 폐석재들을 모아 높이 2.2m의 청석탑 1기를 세웠는데 옥개석 5개중 3개에 연화문이 새겨져 있어서 통일신라 때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입석대



◀ 입석대 전경, 소초면 홍양리 소재

입석사 앞에 있는 바위로서 '대바위'라고도 한다. 주변에는 노송이 있으며, 바로 앞에는 신라 때의 것으로 추정되는 3층 석탑이 있고, 약 30여 미터 떨어진 곳에는 마애여래 좌상이 있다. 또 골짜기 맞은 편에는 산신체를 지내는 신선대라는 절벽이 있다. 立石의 높이는 약 20m, 가로 세로가 약 5m인 네모꼴의 석주와도 같은 것이 30m높이나 되는 절벽 위에 우뚝 서 있다.

입석사 석탑



◀ 입석사석탑, 소초면 홍양리 입석사 소재,
문화재자료 제19호

입석사 석탑은 문화재자료 제19호(1984. 6. 2)로서, 점판암을 이용한 청석탑이다. 조선 태종(1400~1418)이 즉위한 후 어린시절에 가르침을 받았던 스승 원곡 원천석을 자주 불렀으나 응하지 않고 치악산에 들어가 은둔생

활을 하며 나타나지 않으므로 태종이 스승을 생각하며 세운 탑이라는 전설이 전한다. 탑의 높이는 약 2.2m로서 주변에 흩어져 있던 석탑의 각 부재를 쌓아 올린 것인데 2기의 석탑 부재가 아닌가 한다. 두툼한 방형의 연화대석이 2석이고, 얇은 연화대석이 1석, 각면에 양쪽 우주가 모각된 탑신석이 3석, 방형의 판석이 4매석인 점으로 보아 그러한 추정이 가능하며, 또한 연화문이나 탑신석들의 치석수법으로 보아 고려시대 작품으로 추정된다.

마애불좌상



◀ 마애불좌상, 소초면 홍양리 입석사 소재,
강원도유형문화재 제117호

소초면 홍양리에 소재한 마애불좌상은 현재 강원도유형문화재 제117호로 지정되어 있는 높이는 1.7m의 석각이다. 치악산 입석사(立石寺) 근처에 있는 입석대(立石臺)로부터 약 30m 떨어진 높이 3.3m의 암벽에 부조되어 있다. 마애불은 양호한 편인데 광배와 대좌를 모두 갖춘 불상으로 전체적으로 풍만하고 볼륨감이 있다. 큼직한 나발(螺髮)속에 육계가 솟아있고 나발 사이에 계주가 표현되었다. 상호(相好)는 풍만하나 엄숙한 느낌이다. 삼도(三道)는 업고 범의는 통견(通肩)으로 어깨를 두껍게 덮고 있다. 가슴부분에 내의

의 끝단이 보이고 왼손은 선정인(禪定印)이고 오른손은 어깨 높이로 들어 검지와 엄지를 맞대어 미타정인(彌陀定印)을 하고 있다. 결가부좌를 하였는데 다리 위에 의습(依褶)이 단순화되어 다리의 윤곽과 평행으로 나타나 있다. 광배는 원형 두광(頭光)과 신광이 이어진 거신광(擧身光)으로 아무 장식이 없다. 대좌를 보면 하대와 중대는 선각으로 윤곽만 나타내었고 상대는 단엽(單葉)의 양련과 복련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 연화좌(蓮華坐)로 입체감 있게 표현하였다.

전체적으로 균형이 잡혀있고 풍만감이 있으나 비대한 느낌은 없고 최근에 마애불 좌측하단에 “元祐五年庚午三月日”이라는 명분이 발견되어 마애불의 조상연대가 1090년(선종7)으로 밝혀졌는데 11세기 한국조각사의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5. 보문사(普門寺)

위치 및 유래



▲ 보문사 전경, 원주시 행구동 소재



▲ 보문사 대웅전

보문사는 국형사(國亨寺) 북동쪽으로 약 2km 위에 있으며 향로봉 아래, 웃고문골에 있는 사찰이다, 국형사를 ‘아랫고문절’이라고 하고 보문사는 ‘웃고문절’이라고도 한다. 원래는 신라 경순왕(927~935) 때에 무착대사가 창건하였다고 하며, 관세음보살을 봉안하고 있다. 대웅전과 요사는 근래에 중건한 것인데 청석탑이 있어서 오래 된 절임을 확인해 주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옛날에는 보문연사(普門蓮社)라고 하였다고 한다.

현재 보문사에는 대웅전 이외에 명부전, 산신각, 용왕각이 있으며, 강원도유형문화재 제103호인 청석탑이 보존되고 있다.

청석탑



◀ 보문사 청석탑, 강원도유형문화재 제103호

보문사에 있는 이 탑은 정관암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신라 말기에 시작되어 고려시대에 유행한 양식으로 현재 해인사(海印寺), 금산사(金山寺) 등 몇 곳에만 있는 희귀한 탑이다. 이 탑은 두 개의 기단과 다섯 개의 옥개 그리고 2, 3, 4층의 탑신만 원형대로 남아있고 전체의 탑재(塔材)가 원형은 아니다. 강원도유형문화재 제103호이다.

6. 영원사(領願寺)

위치 및 유래



▲ 영원사 전경, 판부면 금대리 소재



▲ 영원사 대웅전

영원사는 판부면 금대리 영원골에 있는 사찰로서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 본사인 월정사의 말사이다. 676년(문무왕 16) 의상(義湘)이 영원산성의 수호 사찰로 창건하여 영원사(永遠寺)라고 하였다가 조선시대 1664년(현종 5)에 인환(仁煥)이 중건하면서 영원사(領願寺)로 바꾸었다. 그 뒤 한때 폐허가 되었던 것을 1939년에 이계호(李戒浩)가 중건하였고, 오랜 풍우로 붕괴 우려가 있었던 법당을 주지 김병준(金秉俊)이 중수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존 건물로는 대웅전과 삼성각(三聖閣), 요사채 2동이 있다. 대웅전 안에는 석가여래 삼존불을 모신 불단과 신중탱화를 모신 신중단(神衆壇), 영가(靈駕)의 천도를 위한 영단(靈壇)이 갖추어져 있으며, 삼성각 안에는 칠성·산신·독성의 탕화가 봉안되어 있다. 옛 석물(石物)이나 특별한 문화재가 없고 전통 사찰 중에서 가장 규모가 작다.

절 뒤쪽 산 위에는 4km에 걸쳐 영원산성의 흔적이 남아 있다. 이 석성(石城)은 문무왕 때 축성하였으며, 892년(진성여왕 5) 후고구려의 궁예가 이 성을 근거로 하여 부근의 여러 고을을 공략하였다는 사실이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다. 1291년(충렬왕 17)에 원나라의 합단적(哈丹賊)이 침입하였을 때는 원충갑(元沖甲)이 항전하여 적을 무찔렀던 곳이며, 임진왜란 때는 원주목사 김제갑(金悌甲)이 왜적과 싸우다가 순절한 곳이기도 하다.

7. 연암사(燕岩寺)

위치 및 유래



◀ 연암사 전경, 원주시 행구동 소재

행구동 76번지, 거름터 뒷 골짜기에 있는 태고종 절로서, 1940년에 세워졌다. 국형사에 있던 대처승들이 비구승들에게 국형사를 빼앗기고 이 절에 와서 생활한다고 한다. 지금의 연암사 위쪽에 옛 연암사의 터가 있다고 한다.

8. 국형사(國亨寺)

위치 및 유래



▲ 국형사 전경, 원주시 행구동 소재

국형사는 원주시 행구동 98번지에 위치해 있다. 신라 경순왕(敬順王) 때 무착대사(無着大師)에 의해 창건되어 ‘고문암(古文庵)’이라 하였고, 무착대사는 이곳을 호법대도량(護法大道場)으로 하여 불도(佛道)에 정진했다고 전한다. 창건연대가 신라시대라고 하지만 이를 증명하는 당시의 유물·유적은 현재 남아 있지 않은 형편이다. 조선조 태조(太祖)가 이 절에 동악단(東岳壇)을 쌓아 동악신(東岳神)을 봉안하고 매년 원주와 횡성, 영월, 평창, 정선고을의 수령들이 모여 제향을 올렸다고 한다. 한편 조선 정종(定宗)의 둘째 공주인 희희공주가 병을 얻자 절에서 백일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공주의 꿈에 백발 노인이 나타나서 병을 고쳐주기를 약속한 뒤 공주의 병이 완쾌되어서 정종이 절을 크게 중창했다는 전설도 있다.

1907년 벽하(碧河)와 응송(應松)이 중창하였으며, 1945년 자항(慈航)이 1974년에는 김용호(金龍浩)가 각각 중수하였다고 한다. 현존하는 건물로는 대웅전과 무애당, 관음전, 요사 등이 있으며, 진암당대선사영주탑(晋庵堂大禪師靈珠塔)과 그 옆에 망실된 부도 1기가 있다. 그리고 봄과 가을에 호국대제를 봉행하는 동악단(東岳壇)이 있다.

대웅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이며 관음전은 정면 5칸, 측면 2칸의 8작집이다. 승방(僧房)인 무애당은 정면 5칸, 측면 2칸의 8작집이고, 이밖에 요사(寮舍)들도 모두 8작집이다. 이 건물의 대부분은 보영(普英) 주지스님이 최근에 중창한 것이다.

9. 석경사(石逕寺)

위치 및 유래



◀ 석경사 전경, 원주시 행구동 소재

석경사는 현재 원주시 행구동 석경촌 윗 황골 마을의 남쪽 골짜기에 있다. 광무 6년(1902)에 기록한 『석경사중수기(石逕寺重修記)』에 석경사는 원주 동쪽, 치악산의 서쪽에 있으며 그 창건연대는 알 수 없지만 영평(永平)이란 명문이 새겨진 기와가 나왔다고 한다. 현재의 건물은 운곡(耘谷) 원천석(元天錫)을 기리는 모운재(慕耘齋)와 그 뒤에 관음전(觀音殿), 명부전(冥府殿), 요사(寮舍)가 있다. 석경사 입구 우측에는 고려국자진사(高麗國子進士) 원천석(元天錫)의 묘소가 있다.

석경사에 대하여 『여지도서(輿地圖書)』에서는 "석경사십사간재주동십오리(石逕寺十四間在州東十五里)"로, 『관동지(關東誌)』에는 "석경사재주동십오리원운곡묘방(石逕寺在州東十五里元耘谷墓傍)"으로 기록되어 있다.

IV. 산 성

The Mountain Fortress in Mt. Chiak

1. 문헌에 나타난 치악산 내 산성간의 관계..... 55
2. 영원산성..... 57
위치(57) / 유래(57) / 원층갑(58) / 김제갑(58) / 구조(59) / 유물 및 유적(59)
3. 해미산성..... 60
위치(60) / 유래(60) / 구조(61) / 유물 및 유적(61) / 성격 및 특징(62)
4. 금두산성..... 63
위치(63) / 유래(63) / 구조(63) / 유물(64)

1. 문헌에 나타난 치악산 내 산성간의 관계

1942년도에 발간된 『朝鮮寶物古蹟調查資料(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에서는 치악산에 있는 산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 (A) 板富面 金垆里 雉岳山の 1. 國有林. 金後山城이라 부른다고 하고, 吉岷峙(길아치)의 북방 약 15町(정)인 雉岳山の 西面 中腹 峰筋(봉근)에 있는 土城으로 둘레가 약 21町인데 전부 붕괴되어 겨우 형적이 있다. 甲種要存豫定林野(갑종요존예정임야).
- (B) 板富面 金垆里 雉岳山の 1. 國有林. 領原山城이라 칭하며, 치악산의 西方 山腹에 있는 石城인데 주위 약 25町, 높이 약 5間, 거의 붕괴되었고, 新羅 神文王 때에 쌓고, 弓裔(궁예)가 여기에 웅거하였으며, 高麗 때 元沖甲(원충갑), 壬辰倭亂 때 金悌甲(김제갑)이 여기에 웅거하였다고 이름. 甲種要存林野.
- (C) 板富面 觀雪里 一部分 雉岳山の 1. 國有林이고 一部分는 私有田垆. 金臺山城(금대산성)이라 칭하며 雉岳山の 西方 山에 있는 石城으로 둘레가 약 13町이고, 높이가 약 3間으로 거의 붕괴됨. 州人 松弼(송필)이 일찍이 이 성에 웅거하여 반란하였다 함. 甲種要存林野.

라고 기록하였다. 이처럼 파악한 세 개의 산성은 현재의 치악산 향로봉 정상 남서쪽 사면에 있는 것(金後山城 : 金頭山城), 領原山城, 금대리 일론 마을 뒷산에 있는 것(海美山城 : 金臺山城)을 말한다. 이 세 산성에 대해 (A)를 金頭山城, 金後山城으로, (B)를 領原山城(靈原山石城)으로, (C)를 海美山城·下尾山城·金臺山城으로 각각 부르고 있다.

『新僧東國輿地勝覽(신승동국여지승람)』의 경우에는 金臺城에 대하여

在州東三十里 雉岳山 石築周六千六十尺 內有三井 今廢 州人松弼據此城叛 州爲一新
(재원동삼십리 치악산 석축주육천육십척 내유삼정 금폐 주인송필거차성반 주위일신)

이라는 기록이 있다. 이 기록상의 금대성은 위의 (C)에 해당되는 해미산성이라 부르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 산성은 치악산의 향로봉에서 서남쪽으로 뻗어 내려와 현저히 낮아진 능선 상에 솟은 산봉과 거기서 파생된 작은 가지능선을 에워싼 산성에 해당하며 석축의 산성이다.

이 성은 『輿地圖書(여지도서)』에서는 金臺山城이라 보이며, 『大東地志(대동지지)』에서는 金臺城이라 하였고, 뒤에다가

新羅聖德王二十年徵何瑟羅丁夫二千築北原京城
(신라성덕왕이십년징하슬라정부이천축북원경성)

이라고 하였다. 이 기록은 『三國史記』의 新羅本紀 聖德王 20년(721)의 기록에서

秋七月 徵何瑟羅道丁夫二千 築長城於北境
(추칠월 징하슬라도정부이천 축장성어북경)

이라는 기록과는 달라서, 『大東地志』의 撰者(찬자)가 무엇인가를 혼동한 것으로 여겨진다. 『高麗史』의 高宗 44년 夏四月 乙亥에는

原州賊安悅等 據古城叛 遣將軍尹君正 郎將權贊 領兵討之
(원주적안열등 거고성반 견장군윤군정 낭장권찬 영병토지)

라 하고, 이어서 丙子일의 기록에는

君正與賊三百餘人 戰于元倉 大敗之 有人斬安悅出降 君正入城
(군정여적삼백여인 전간여원창 대패지 유인창안열출항 군정입성)
斬基巨魁松庇·敦正·唐老等數人 脅從者徙置干島
(창기거괴송비·돈정·당로등수인 협종자사치간도)

라 하였다. 이 기록은 『高麗史節要』에서도 동일하게 보이고 있다. 그러나 『高麗史』의 地理志에서는 高宗 46년에 “以州逆命 降爲一新縣(이주역명 항위일신현)”이라고 하여 松庇(송비)의 반란이 있는 2년 뒤에야 一新縣(일신현)으로 강등된 사실을 적고 있다. 따라서 이후 조선시대의 지리지들이 마치 松弼(송필)이 高宗 46년(1259)에 반란한 것으로 오인하도록 기록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반란이 있었던 것은 高宗 44년(1257)의 일이었고, 이후 이듬해인 1258년에 강등되거나, 혹은 『高麗史』 地理志의 기록대로 1259년에 강등되었으나, 바로 이듬해인 元宗 元年(1260)에 새로운 왕의 등극으로 다시 州로 회복되었다.

1257년의 반란은 安悅(안열), 松庇(송비), 敦正(돈정), 唐老(당로) 등이 주동자인데, 지리지에서는 松弼(송필)이라 기록되었다. 松庇와 松弼은 동일인의 다른 표기로 여겨진다. 庇는 음이 “비”로서 뜻은 덮는 것과 감싸거나 보호한다, 의지한다, 그늘 등으로 새긴다. 弼은 음이 “필”이며, 뜻은 돕다, 보좌하다 라는 뜻으로 새긴다. 이처럼 비슷한 의미의 한자어로 표기된 점으로 보아 동일 인물로 여겨도 좋을 듯하다.

이들이 반란을 일으킨 곳을 古城이라 하였다. 이 古城이 곧 金臺城이라면, 당시에는 이미 금대성 이외에 새로운 성이 있었다는 의미가 된다. 이 새로운 성이 곧 금대성을 대신하여 雉岳城으로 역할을 한 嶺原山城이라 여겨진다. 왜냐하면 영원산성에서는 정상부가 아니고서는 직접 원주시가 바라다 보이지 않고, 원주시로부터는 더욱 멀리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또한 산성의 축조 방법에 있어서 금대성은 영원산성보다 古式에 속하는 석축 산성이다. 금대성은 일종의 山頂式 山城에 해당되나, 영원산성은 성안에 작은 계곡이 있어서 보다 籠城(농성)을 장기간 할 수 있는 잇점이 있다. 그리고 성을 포위하기에 더 어려운 지리적 여건을 갖추고 있다. 이처럼 계곡을 포용하고, 오랜 도안 농성할 수 있는 산성은 이미 후삼국 시기에 전국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며, 고려 시대의 후기에는 거의 일반화되는 현상으로 이해될 수 있다.

2. 영원산성(領原山城)

위 치



▲ 영원산성 전경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 산50-2번지에 위치한 영원산성은 원주 동남쪽 치악산 자락의 해발 700~970m되는 매우 높은지대에 위치하고 있는데, 북서쪽으로는 치악산 향로봉(1,042m), 동쪽으로는 남대봉(1,191m)이, 동남쪽으로는 시명봉이 자리잡고 있다. 이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원주에서 신림 방향으로 이어지는 5번국도를 따라 가다가 금대리에 이르러 좌측으로 들어가는 골짜기 입구가 나타나는데, 이곳에서 약 5km 정도 가면 영원사가 나타난다. 영원산성은 바로 이 절의 동북쪽에 위치하고 있다.

유 래

1979년 5월 30일 강원도기념물 제27호로 지정된 영원산성은 신라 문무왕 또는 신문왕 때에 쌓았다고 하나 확실한 고증이 없다. 또 후삼국의 혼란기에 양길(梁吉)과 궁예(弓裔)가 이곳에 거처하면서 인근 고을을 차지하게 되었다고도 한다. 문헌에는 영원성이라 하여 둘레가 3,749척이며, 성 안에 우물 한 개와 샘 다섯 개가 있었다고 전해진다.

현재는 둘레 4km 정도의 석축이 남아 있으며 높이는 1~3m이다. 외적의 침입이 있을 때에는 원주와 이웃 고을 주민들이 이곳에 들어와서 지켰으며, 치악산의 서쪽 중턱에 있는 금대산성이나 해미산성과 서로 교류하여 적을 물리칠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리잡고 있다.

다듬지 않은 돌덩이를 차곡차곡 쌓아올린 모습이 비교적 많이 남아 있으나, 옛날 치열한 접전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다. 그 중에서 유명한 접전으로는 고려시대인 1291년(충렬왕 17) 원나라의 합단군(哈丹軍)과 원충갑(元沖甲)이 이끄는 부대와의 싸움이다. 향공진사(鄉貢進士)로 별초군(別抄軍)에 있던 원충갑은 이곳에서 원주의 백성들과 함께 적군을 물리쳐 이름을 날렸다.

또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원주목사 김제갑(金悌甲)은 왜장 모리 요시나리[森吉成]의 군사가 쳐들어오자 관병과 의병을 이끌고 이곳에서 맞서 싸우다가 성이

함락되자 그의 아들 시백(時伯)과 부인 이씨와 함께 순절하였다. 그리하여 학성동(鶴城洞)에는 문숙공 김제갑 충렬탑이 세워져 있다.

원충갑(元沖甲, 1250~1321)



◀ 원충갑 묘, 지정면 간현3리 소재

고려의 무신으로, 본관은 원주이다. 원주사람으로 체구는 작으나 정력이 넘쳐 날쌔었고 눈동자가 번개처럼 빛났으며, 위험한 지경에 있으면서도 자기 한 몸을 돌보지 않았다. 향공진사(鄉貢進士)로 원주 별초(原州別抄)에 있으면서 1291년(충렬왕 17) 원나라 반란군인 합단적(哈丹賊)이 치악성(雉岳城)을 포위하자, 전후 10차에 걸쳐 적을 크게 무찔렀다. 이때 결사대 중산(仲山), 방호별감(防護別監) 복규(卜奎), 흥원창판관(興元倉判官) 조신(曹愼), 별장(別將) 강백송(康栢松), 원주 아전(衙前), 원현(元玄) 등 다수의 사람과 힘을 합쳐 물리쳤다. 이로부터 합단적은 예봉(銳鋒)이 꺾이어 감히 공격도 노략질도 하지 못하였고 여러 고을에서도 굳게 방어하게 되어 비로소 합단적을 경시하는 마음이 생겼으니, 이는 모두 원충갑에게서 얻은 힘이었다. 원충갑의 이러한 공로로 원주는 익흥도호부(益興都護府)로, 다시 1308년 원주목(原州牧)으로 승격되었고, 원주에 부과되던 각종 부역(賦役)과 잡공(雜貢)이 3년 동안 면제되었다. 원충갑 또한 여섯 번 전임(轉任)하여 삼사(三司) 우윤(右尹)에 올랐다.

충선왕(忠宣王) 때 응양군(鷹揚軍) 상호군(上護軍)이 되었고, 합단적을 물리친 공으로 1319년(충숙왕 6) 추성분용정란광국공신(推誠奮勇定亂匡國功臣)이 되었다. 시호(諡號)는 충숙(忠肅)이다. 치악산 영원산성 안에 원충갑사(元충甲祠)가 세워져 제사를 모시다가 1669년(현종 10) 사당을 세워 원충갑을 주향(主享)하고 김제갑(金悌甲)과 원호(元豪)를 배향(配享)하였고, 1670년(현종 11) 윤2월 7일 충렬사(忠烈祠)로 사액(賜額)되었다. 충렬사는 1871년 철거되어 사액 현판은 괴산 충민사로 옮겨졌다. 묘소는 원주시 지정면 간현리에 있다.

김제갑(金悌甲, 1525~1592)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안동, 자(字)는 순초(順初), 호(號)는 의재(毅齋)이다. 고려의 명장 김방경(金方慶)의 후손으로, 아버지는 진사(進士) 김석(金錫)이고, 이황(李滉)의 문인(門人)이다. 1553년(명종 8) 별시문과(別試文科)에 급제하여 홍문관 정자(正字), 병조좌랑(兵曹佐郎), 정언(正言)을 거쳐 1581년(선조 14) 충청도관찰사를 역임하였고, 1583년 우승지(右丞旨)로 있으면서 이이(李珥)와 박순(朴淳)을 탄핵하다가 벼슬에서 물러났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원주목사(原州牧使)로 있다가 왜장 모리 요시나리(森吉成)가 거느린 왜군이 관동지방을 휩쓴 뒤에 원주를 침공하여 오자 가족과 고을 백성을 이끌고 영원산성으로 들어가 방어에 임했으나, 왜군의 공격으로 결국 성이 함락되어 부인

이씨와 아들 김시백(金時佰)과 함께 순절하였다.

조정에서 그의 충절을 기려 1592년에 이조판서 겸 경연(慶筵) 홍문관(弘文館) 대제학(大提學) 예문관(藝文館) 대제학 의금부도사(義禁府都事) 성균관(成均館) 춘추관사(春秋館事)에 추증(追贈)하였다. 원주의 충렬사와 괴산의 화암서원(華巖書院)에 제향되었다. 1711년(숙종 37)에 ‘문숙(文肅)’이라는 시호(諡號)가 내려졌다. 1966년 강원도 애국유족부활위원회에서는 원주역전에 그를 추모하는 충렬탑(忠烈塔)을 세웠고, 이곳에는 1670년에 세워진 충렬비가 남아있다. 김제갑 목사의 충렬비에 기록된 명문(銘文)에는, “죽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죽어야 할 곳에서 죽는 것이 어려운 것이니, 오직 군자라야만 생명을 버리고 의리를 취하는 것이다. 위급함을 당하여도 평소와 같이 보고 충성심과 분개심을 가다듬어 끝과 시작이 다르지 않았도다. 신하는 충성으로 죽고, 부인은 죽어 정절을 지켰으며, 아들은 죽어 효도를 다하였으니 여기 만고(萬古)에 삼강(三綱)과 오륜(五倫)을 남겼도다. 치악산이 동쪽에 우뚝 솟고 봉천(鳳川)은 서쪽으로 흐르니 선생의 이름과 함께 길이 갈 것이다.”라고 하였다.

구 조

영원사 뒤편의 970고지에서 산능선을 따라 석축된 성이다. 이곳은 영원사 옆에 있는 작은 계곡천을 건너 능선을 따라 약 350m 정도 올라가면 도착하는데, 주봉인 970고지를 중심으로 좌우의 능선을 따라 축조한 포곡식 산성으로 그 모양은 남북으로 긴 모양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해발 700~970m에 이르는 지대에 축조하였기 때문에 고저의 격차가 커서 주봉 부근에서는 성내를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다.

성벽은 붕괴되기는 하였으나 대체로 잘 남아 있는 편인데, 특히 동~남쪽에 이르는 성벽이 잘 남아 있다. 성벽은 내외겹축, 혹은 외축내탁 방식을 혼용하여 쌓았으며, 치성은 별도로 만들지 않고 다만 능선의 굴곡에 따라 깊게 돌아나가는 끝 지점이 치성과 같은 기능을 하도록 축조되었다. 성벽은 자연석을 이용하여 축조하였는데 성벽 길이는 동~남쪽 성벽이 약 900m, 북~서쪽 성벽이 1,020m, 북쪽의 주봉으로 올려쌓은 부분이 60m로 현재 확인되는 성벽의 총연장은 1,980m이며, 양 능선에서 계곡쪽으로 연결되는 지대는 성벽을 쌓을 필요가 없는 절벽이고 계곡천변에는 아마 수구문을 만들면서 양측에 석축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나 붕괴가 심하여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성벽의 높이는 3m 이상되는 곳도 있으나 지형에 따라 높이가 다르며, 높게 쌓은 곳은 안쪽으로 약간 각도를 줄여가며 축조하였다. 영원산성은 지형상 북문지 부근이 가장 완만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다른 곳보다 성벽을 높이 쌓고 성밖에는 해자(垓字)를 파서 성벽으로 쉽게 오르지 못하도록 한 흔적이 남아 있다. 그리고 성의 여장(女牆)은 통상적으로 1개 내지 수개의 층안을 가진 것이 1타(堞)가 되는 것이 보통인데 영원산성에서는 그러한 타의 구분없이 전체 성벽 폭의 1/3정도(약 70cm)되는 넓이로 여장을 축조하였다. 그러나 모든 성벽에 설치한 것은 아니고 성문 주변과 취약한 곳에 주로 설치되었다.

유물 및 유적

현재 영원산성에서는 북쪽과 남쪽에서 분명한 문지가 확인되고 주변에서는 다량의 와

편이 발견된다. 또한 동북~남쪽에 이르는 성벽의 끝 지점과 중간, 그리고 주봉 근처, 북~서쪽에 이르는 성벽의 866고지 주변 등지에서도 와편이 발견되는 점으로 보아 장대(將臺)나 후망(候望) 시설물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북문지(北門址) 주변과 가까이 있는 성내의 완만한 곳에는 여러 건물지가 확인되는데 군창(軍倉)과 산성사(山城寺)가 있었던 곳으로 추정된다.

또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영원산성에 1개의 우물과 5개의 샘이 있다고 하였으나, 현재는 초목이 우거지고 매몰되어 명확한 흔적이 확인되지는 않지만 북서쪽의 건물지 주변에 샘이 흐르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3. 해미산성(海美山城)

위 치

해미산성이 위치한 곳은 원주시 관설동과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의 경계를 이루는 산(699.2m)에서 남쪽으로 뻗은 산(629.7m와 627.5m의 두 봉우리에서 서남쪽으로 뻗은 5개의 가지능선을 포옹) 위에 있다. 산성의 남쪽 산 아래 마을의 행정지명은 금대리이다. 이 금대리의 서쪽에서는 원주-제천을 오가는 5번 국도와 중앙선 철도가 가리파고개를 넘는다. 이 가리파 고개에서 발원한 계곡 물이 서북쪽으로 흘러 내려가 금대리의 치악골 골짜기에서 흘러 내린 물을 합류하는데, 이 합류 지점에 있는 마을이 “함박골”이다. 함박골에서 북쪽으로 치악골 계곡을 따라 올라가면 금대 초등학교의 일론 분교가 있다. 소쩍새 마을이 있어서 유명하기도 한 이 마을이 “일론”마을이다. 성은 이 일론 마을에서 북서쪽으로 작은 계곡을 타고 올라 다시 동쪽으로 올라가게 된다.

유 래

조선시대의 기록을 보면 원주의 성으로 모두 영원산성과 금대산성을 기록하고 있다. 즉 이것은 당시까지도 이 두 산성이 가장 현저하게 성의 형태가 남아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물론 현지 주민들은 이 금대산성을 ‘해미산성’이라고 부르고 있고, 영원산성 서쪽에 있는 성을 ‘금두산성’이라고 하고 있지만 이들 명칭은 ‘해미(海美)’나 ‘금두(金頭)’로 표기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즉 현지인들이 부르는 명칭은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와전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또 이러한 호칭은 한자표기에 의존하지 않은 명칭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중원문화권유적정밀조사보고서』에서는 이를 ‘하미산성(下尾山城)’이라고 표기하였지만 확실한 근거는 없다. 즉 ‘해미’나 ‘하미’의 명칭이 언제부터 생겼는지는 알 수 없으며 출처 또한 분명치 않은 명칭이다. 이 산성은 궁예가 진을 쳤던 곳이라고 전하나 이를 고증할 만한 자료는 없고, 단지 『삼국사기』를 참고할 때, 양길이가 일시적으로 이 성을 근거로 하였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구조

이 산성은 해발 629.7m와 627.5m의 봉우리를 가장 높은 곳으로 하여, 거기서 남쪽과 서쪽으로 뻗은 산줄기를 따라 성벽이 축조되었다.

전체적인 평면구조는 매우 복잡하다. 성의 가장 북쪽인 가장 높은 봉우리에 북문터가 있다. 이곳에서 출발한 성벽은 서쪽으로는 능선의 외선을 따라 내려가 서북쪽 회곡부(回曲部, 휘어서 꼬부라지는 부분)에 있는 동문터에 이른다. 이 성벽은 “북쪽 성벽”으로 분류되며, 길이는 약 340m이다.

북문터의 동측 개구부 측벽에서 시작하여 동남향하여 627.5m의 고지를 돌아 다시 서남향하여 만곡(彎曲, 활 모양으로 굽은 부분)한 부분을 지나 회곡하는 곳까지는 성의 동쪽이 되므로 “동쪽 성벽”으로 분류된다. 이 동쪽 성벽의 남단에서는 성벽이 회곡하며, 성밖으로 안부(鞍部, 산마루가 움푹 들어간 곳)를 지나 572m의 봉우리가 있다. 이 동쪽 성벽은 길이가 약 410m이다.

동쪽 성벽의 남단인 회곡부에서 현저히 낮아지며 성벽은 서쪽으로 내려가 가장 큰 곡부(谷部, 계곡 부분)를 횡단하여 가장 남쪽인 553.5m의 봉우리를 회곡하며 돌아 다시 만곡한 다음 539.9m의 치성 부분에 이른다. 이 구간은 성의 남쪽 면에 해당하므로 “남쪽 성벽”이라 하며, 세 군데의 문터와 남쪽 수구터가 있다. 이 성벽의 길이는 약 720m이다.

북쪽 성벽의 서단에서 남쪽 성벽의 서단까지는 두 개의 골짜기를 가지며, 중간에 해발 555m의 능선을 돌아 감고 있다. 이 구간은 성의 서쪽면에 해당되므로 “서쪽 성벽”이라 할 수 있으며, 길이는 약 350m이다.

따라서 전체 성벽의 길이는 약 1,820m가 된다.

유물 및 유적

해미산성에는 크게 3개의 계곡이 있고, 그보다 작은 계곡이 두 곳이 있으며, 계곡은 아니나 약간의 빗물이 배수될 수 있는 곳도 있다. 3군데의 가장 큰 계곡에는 족보 깊게 물이 배수되는 곳이 있으며, 이곳에는 수구가 있었다고 여겨지나, 지상에 드러난 유구는 없다.

서쪽 성벽의 북쪽에 있는 골짜기는 현재의 배수로와 그 인근이 무너져 있다. 이곳에는 당초 수구가 있었다고 여겨지나, 지금은 없다. 그리고 이 배수로의 안쪽으로 들어가서 물이 조금씩 나와 흐르는 곳이 있고 여기가 우물터로 생각된다. 서쪽 성벽의 남쪽에 있는 계곡도 마찬가지로 골짜기를 이룬 중앙으로 배수가 되면서 좌우의 성벽이 무너졌다. 이 배수로의 안쪽 가까이에 지금도 물이 조금 고여 있는 우물이 있는데, 직경 1.5m의 크기로 둥글게 석축의 흔적이 남아 있다.

남쪽 성벽의 동쪽으로 가장 큰 계곡에도 물이 내려가는 배수로가 있으며, 역시 좌우의 성벽이 무너지고 중앙에 깊이 파인 배수로가 있다. 이 배수로의 안쪽은 평탄한 곳이며, 더욱 올라가서 지금도 식수로 이용하는 우물터가 있다.

해미산성에는 성내의 곳곳에 건물지의 흔적이 있다. 산봉과 능선의 선단부에는 예외 없이 건물지로 보이는 평탄지가 있으며, 문터의 안쪽과 수구의 안쪽 넓은 평탄지들도 건물지로 여겨진다.

가장 큰 건물지는 서쪽 성벽 북쪽의 계곡부 안쪽과 서남쪽 雉城의 안쪽에서 우물터까지의 부분, 그리고 남암문(南暗門)의 내부에서 길게 뻗은 능선 부분과 남쪽 계곡의 내부 평탄지 등이다. 이들 건물지로 여겨지는 곳 가운데 서남쪽 치성의 안쪽에는 돌확이 있기도 하며 주초로 여겨지는 돌과 자연석의 노두(露頭)도 있다. 나머지는 숲이 우거지거나 밭으로 경작된 흔적이 있다.

해미산성에서 수습한 유물들은 토기편 4점과 기와편 18점만으로 소량에 불과하다. 주요 유물 수습지역은 성내 남쪽의 각 우물터를 중심으로 한 지역과 동북벽을 타고 올라가는 평탄대지, 그리고 북문터이다. 특히 북문터에서 발견된 청해파문 와편은 바로 동북쪽에 위치한 영원산성에서 많이 발견되는 것으로 해미산성이 조선 시대에도 일정 시기 동안 사용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수습된 토기편은 단면 삼각형의 돌대나, 안팎면의 타날 등을 특징으로 하는 것들로 대체로 고려 초기의 것들로 여겨진다.

18점의 기와편 중 수키와편은 모두 7점으로 대체로 선문(線紋)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어골문(魚骨紋)도 1점이 있다. 대략적으로 이러한 선문의 와편은 통일신라말기~고려초기의 것들로 여겨지며, 어골문의 와편은 두께가 얇은 특징을 갖고 있다. 또한 11점의 암키와편 역시 선문이 주를 이루며 모두 포목흔이 보인다. 시기적으로 살펴보면 삼국시대까지 올라가는 것은 없으며, 통일신라에서 고려시기의 것으로 여겨진다.

성격 및 특징

해미산성은 전체의 평면이 매우 불규칙한 모양으로 되어 있는 테뢰식 산성이나, 이런 유형의 산성으로서는 규모가 큰 편에 속한다.

이 산성의 성벽은 문터의 좌우 일부를 제외하고는 외면을 석축하고, 안쪽으로는 잡석과 흙을 다져 넣은 이른바 내탁(內托)된 성벽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성벽의 외면은 비교적 큰 활석으로 면을 고르게 조정하고 아래에서 위로 오르면서 수평을 맞추어 차츰 들어 쌓기를 하여 정연한 벽면을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수법은 이 산에서 면(面)을 다듬기에 좋은 화강암 계통의 석재가 많은 것과 관련된다고 여겨진다. 성벽은 높이가 높지 않은 편이며, 축조 방법에 있어서도 아래에서 위로 오르면서 차츰 석재의 규모가 작아지고 있는 점 등에서 古式을 보이고 있다. 이런 점에서는 이 산성이 영원산성보다 古式에 해당되고, 서로 형식이 다르다. 이러한 축조 방법은 고구려와 같은 북방으로부터의 영향을 짙게 받은 遺風이 이 지역에 傳存되어 나타난 것으로 여겨진다.

해미산성에서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축조 방법은 커다란 활석으로 쌓으면서 석재 사이의 틈에 썬기돌을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이다. 이러한 축조 방법은 앞의 고식과는 다른 방법이며, 훨씬 연대가 떨어지는 고려 후기에서 조선 시대에 유행한 방법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즉 이러한 방법은 흔히 조선 초기에 축조된 邑城들에서 유행한 수법과 견주어진다. 견고성 보다는 쌓기에 工力을 줄이고, 석재를 다듬는 어려움을 더는 방법이다. 따라서 이 산성은 고식의 축성 방법과 그보다 시기가 떨어지는 방법이 존재함으로 보아 여러 차례의 수축과 보수가 있었던 성으로 여겨진다.

4. 금두산성(金頭山城)

위 치

향로봉 남서쪽에 위치하는 성으로 금대산성이나 영원산성보다 훨씬 안쪽에 위치하고 있다. 이 성은 향로봉 서남쪽의 해발 1,000m되는 고지에서 서쪽과 남쪽으로 흘러내린 능선을 따라 해발 약 700m되는 지대까지 축조되었다. 이곳은 행구동 보문사 골짜기와 반곡동 한가터를 통하면 바로 도착 할 수 있는데, 아마 이 성이 사용되었을 당시 원주 주민은 이 통로를 따라 입성(入城)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외에도 이 성은 남쪽으로 금대리로 이어지며 북쪽과 동쪽으로는 향로봉을 지나 황성군 강림면과 원주 신림면으로 통하게 되어 있다.

유 래

이 산성에 대한 사실은 조선시대 이전의 기록에서는 찾아 볼 수 없고, 1942년도에 발간된 『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에 처음으로 “금후산성(金後山城)”이라는 명칭으로 나타났다. 이 기록에서 “금후산성(金後山城)”이 “금두산성(金頭山城)”의 誤記인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현재 원주에서 금두산성이라 부르고 있는 성지(城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 성의 축조시기는 명확지 않다. 다만 축조방식, 출토유물, 퇴락의 정도 그리고 고려·조선시대의 기록에 전혀 언급이 없는 점으로 볼 때, 통일신라 이전에 축조된 산성으로 판단된다.

구 조

성의 서쪽과 동쪽 일부 구간에 성벽이 완연히 남아 있는데, 이는 대체로 암반위에 축조하거나 지반이 튼튼한 곳이기 때문에 붕괴를 면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성의 남쪽 비교적 완만한 경사지에는 토성을 축조한 흔적이 남아 있고, 외부에는 토석(土石)이 혼합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토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부의 기반과 마무리 공사를 돌로 한 것으로 추정된다.

성벽은 능선에서 역 1~6m 정도 아래쪽에 축조한 것이 대부분이나 지형에 따라 성외부가 험하여 성벽을 구축할 필요가 없는 곳에는 능선을 삭토(削土)하고 그 위에 돌을 깔아 유실을 방지하였다. 또한 일부 구간에서는 능선의 외부나 중심부를 삭토하고 외부만 석축하는 외축내탁의 방식으로 축조하였다. 그리고 성의 동쪽 구간에는 능선의 안쪽을 삭토하여 통로를 만들고 능선 외부에는 석축을 하였는데, 이는 삭토된 능선이 성벽 구실을 하는 삭토식 토성으로 생각되며, 외부에 석축한 것은 붕괴되기는 하였으나 그 높이가 높지 않은 점으로 보아 삭토하여 만든 토성의 방어력을 높이고 토성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내부에는 여러 개의 크고 작은 골짜기가 있고, 비교적 평탄한 지대가 넓게 형성되어

있다. 이곳을 “금두고원”이라 칭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이다. 성 내부는 지난 1960년대말 화전정리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이곳 주민들이 화전으로 개간하여 이용하면서 계단식의 전지(田地)로 만들었기 때문에 형태가 많이 훼손된 상태이다. 성의 남쪽 계곡에는 지류가 있는데 이 골을 가로 질러 석축한 흔적이 남아 있다. 이곳은 수구문지로 추정되나 경사도가 낮은 지대를 택하여 계곡천을 가로막은 점으로 보아 이곳을 막아 성지(城池)로 사용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 물

성내에서는 와편과 토기편이 발견되었다. 와편은 선문(線紋)계통의 회색 암키와와 회청흑색을 띤 경질와(硬質瓦)이며, 토기(土器)는 모두 경질(硬質)로 회청색이나 암갈색을 띠고 있으며, 자연유(自然釉) 흔적이 있는 띠줄무늬 토기편도 발견되었다.

V. 역사 유물 · 유적

The Historic Remains

1. 황장금표 66
위치 및 유래(66)
2. 태종대 67
위치 및 유래(67) / 원천석(68)
3. 노고소 69
위치 및 유래(69)
4. 변 압 69
위치 및 유래(69)
5. 국형사 동악단 70
위치 및 유래(70)

1. 황장금표(黃腸禁標)

위치 및 유래



▲ 제1 황장금표 (매표소 앞)



▲ 제2 황장금표 (새재골 입구)

소초면 학곡 2리에 있으며 강원도 기념물 제30호이다. 금표(禁標)는 2개가 있는데 제1금표의 폭은 110cm, 높이는 47cm이다. 제2금표는 밑부분이 매몰되어 있어 정확한 크기를 알 수 없으나 “황장금표(黃腸禁標)”라고 새겨진 부분은 24x25cm의 편편한 면이다. 제1금표는 구룡사 매표소 왼쪽에 위치해 있으며, 제2금표는 주차장 아래 왼쪽 언덕 아래 구로(舊路) 옆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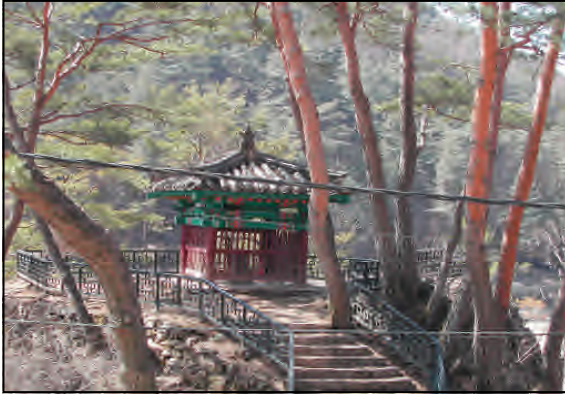
금표는 황장목(黃腸木) 봉산(封山)의 경계 표시로 궁중에서 필요한 황장목 금양(禁養)을 위하여 일반민의 도벌을 금지한다고 하는 표식으로 일종의 보호림 표식이라 할 수 있다.

황장목은 나무의 수심 부분이 누르고 재질이 단단한 소나무로 그 심재부(心材部)를 취하여 조제한 목재는 왕실의 신관을 만드는 재궁용(梓宮用)으로 쓰였다고 한다. 금표제도는 조선초기부터 있었던 것으로 치악산에는 질 좋은 소나무가 많고 강원감영(江原監營)과 가까워 관리가 편리하고 한강 상류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수운(水運)이 발달하여 조선 초기 전국 60개소의 황장목 봉산 중에서도 이름이 나 있었다고 한다.

제1금표는 자연석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황장금표(黃腸禁標)’라고 한 줄에 새겨져 있는데 ‘금(禁)’자와 ‘표(標)’ 사이에 ‘동(東)’자가 있는 것이 확인된다. 제2금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상하 두 줄로 ‘황장(黃腸)’·‘금표(禁標)’라 새겨져 있는데 ‘금표’ 위에 ‘외(外)’자가 확인되었다.

2. 태종대(太宗臺)

위치 및 유래



▲ 태종대 上 (駐蹕臺)



▲ 태종대 下

횡성군 강림면 강림2리에 있는 태종대(太宗臺)는 조선 태종과 운곡(耘谷) 원천석(元天錫)과 관계되는 유적으로, 문화재 자료 제16호로 지정되었다. 원천석은 고려 때 좌명공신(佐命功臣) 금자광록대부(金紫光祿大夫) 문하시중평장사(門下侍中平章事)를 역임한 원경(元鏡)의 19대 손이며 충숙왕 17년에 종부사령(宗簿司令)을 지낸 윤적(允迪)의 둘째 아들로 원주 원씨의 중시조이다. 고려의 멸망과 조선조 태조의 왕가 형제간의 살육을 통탄하며 분노를 느낀 나머지 관직을 거부하고 개성(開城)을 떠나 이곳 강림리에 은거하였다. 그는 고려왕정(高麗王政) 복고를 위하여 반기를 든 두문동(杜門洞) 72인의 한 사람이며 이양소(李陽昭)·남을진(南乙珍)·서견(徐甄)과 더불어 고려 사처사(四處士) 중 한 사람으로 유명하다. 원주시 행구동 석경촌(石逕村)에 그의 묘소가 있고 칠봉서원(七峰書院)에 배향되었다.

이방원이 조선조 3대 태종으로 등극하여 왕위에 오르기 전에 스승으로 섬겼던 운곡 원천석을 찾아 다시 관직에 앉히고 정사(政事)를 의논하고자 이곳을 찾았으나, 원천석은 태종이 이곳에 오는 것을 미리 알고 태종과의 만남을 꺼려 피신하여 치악산으로 들어가면서 개울에서 빨래하는 노파에게 자신의 행선지를 거깃으로 알리고 골짜기로 들어갔다. 태종이 이곳에 도착하여 빨래하는 노파에게 운곡이 간 곳을 물었으나 노파는 원천석이 일러 준대로 거깃으로 가르쳐 주었다. 태종은 그곳으로 가서 스승을 찾았으나 끝내 찾지 못하고 이 바위에서 기다리다 스승이 자신을 만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돌아갈 수 밖에 없었다. 그 후 태종이 운곡을 기다리며 머물렀다 하여 뒤에 이곳을 ‘태종대’라 하였으며 ‘주필대(駐蹕臺)’라는 비석을 세워 누각 안에 보호하고 있다. 태종대 아래의 기암절벽에는 다음과 같이 각자(刻字)되어 있다.

先生事蹟略記弁岩太宗臺太宗王訪耘谷元先生自覺林避入弁岩上駐
 (선생사적약기변암태종대태종왕방운곡원선생자각림피입변암상주)
 輦于此官其子賞其婢而返篤後人因以名之崇禎後八十年癸卯夏刻
 (런우차관기자상기비이반독후인인이명지송정후팔십년계묘하각)

원천석(元天錫, 1330~?)



◀ 운곡 원천석 묘역, 강원도 기념물 제75호, 원주시 행구동 산37 소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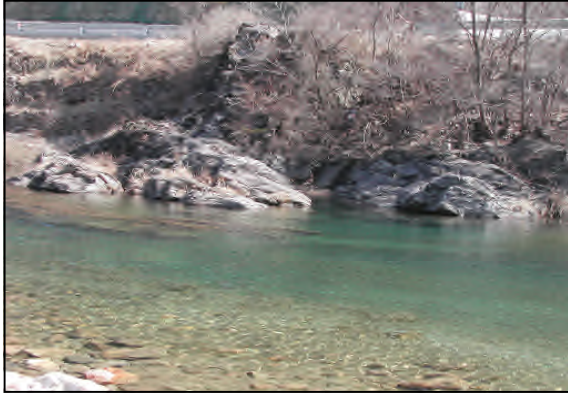
고려말 조선초의 은사(隱士)로, 본관은 원주(原州), 자(字)는 자정(子正), 호(號)는 운곡(耘谷)이다. 정용별장(精勇別將) 원열(元悅)의 손자이고, 종부사령(宗簿寺令) 원윤적(元允迪)의 아들로, 원주 원씨(元氏)의 중시조(中始祖)

이다. 어려서부터 재명(才名)이 있었으며, 문장이 여유 있고 학문이 해박하여 국자감(國子監) 진사(進士)가 되었으나, 고려말의 정치가 문란함을 보고 치악산에 들어가 농사를 지으며 부모를 봉양하였다. 일찍이 이방원을 가르친 일이 있어 그가 태종(太宗)으로 즉위하여 기용하려고 불렀으나 응하지 않았으며, 태종이 직접 집으로 찾아갔으나 미리 소문을 듣고 피하여 포은(圃隱) 정몽주(鄭夢周), 목은(牧隱) 이색(李穡), 야은(冶隱) 길재(吉再)와 같이 높은 지조와 절개를 보였다. 고려말에 정몽주, 이색 등 많은 유학자의 스승인 신현(申賢)의 사적이 소각 당하는 화(禍)를 당하자 정몽주는 신현의 사적을 수거하여 치악산에 은거하는 원천석에게 보냈고, 이에 후세에게 전할 중요한 임무를 갖고 화해사전(華海師傳)을 저술하였다. 문학적으로 깊은 소양을 가졌던 원천석은 그가 남긴 운곡시사(耘谷詩史) 속에서 당시의 사회상과 함께 그의 사상과 철학을 엿볼 수 있다. 고려 몰락의 원인이기도 했던 대토지점병에 의한 사회경제적 혼란에 대해, “무너진 집에 새들만 지저귀니 백성은 도망가고 아전도 보이지 않네. 해마다 민폐만 더했거늘 어느 날 어느 때 즐겁게 지냈으랴, 토지란 토지 권문가에 빼앗겼는데도 포악한 무리들은 문 앞에 연이었네. 문노니 이 고생 누구의 허물인고 남아있는 주민들 더욱 가엾어라.”라고 적고 있는데, 여기에서 대토지점병으로 인해 생활의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탄식하고 그러한 사태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는 모습에서 그의 대토지점병의 반대 입장을 볼 수 있다. 특히, “흥망(興亡)이 유수(有數)니 만월대(滿月臺)도 추초(秋草) 로다. 오백년(五百年) 왕업(王業)이 목적(牧笛)에 부쳐시니 석양(夕陽)에 지나 객(客)이 눈물 계워라.”라는 회고가(懷古歌)는 널리 알려져 있다. 미수 허목(許穆)은 선생의 묘갈(墓碣)에서, “군자는 숨어 살아도 세상을 저버리지 않는다고 하더니 선생은 비록 세상을 피하여 스스로 숨었지만 세상을 잊은 분이 아니었다. 변함없이 도를 지켜 그 몸을 깨끗이 하였다.”라고 표현하였다. 이러한 원천석의 정신은 원주의 사상적 흐름에 많은 영향을 끼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지역의 저변에 흐르고 있다.

행구동 37번지에 있는 운곡 원천석의 묘는 원주원씨 종중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이곳에 1650년 3월에 창립된 높이 1.4m, 폭 55cm의 원천석 묘비가 있다. 비문은 전면에 ‘高麗國子進士原天錫之墓’라는 예서체 글씨가 조각되어 있고 비신석에 운곡 선생의 행적과 내력이 적혀 있는데 글은 외가의 이명은이 지었고 글씨는 통훈대부 전행사헌부 양천 허목(許穆)이 썼다고 한다.

3. 노고소(老苦沼)

위치 및 유래



◀ 노고소

태종이 원천석을 만나러 이 곳에 왔을 때 원천석은 이것을 미리 알고 노파에게 자신이 간 방향과 반대로 가르쳐 줄 것을 부탁했다. 잠시 후에 태종이 오자 원천석의 말대로 길을 반대로 가르쳐 주었다. 태종 일행이 길을 떠나자 임금을 속인 죄책감에 노파가 이 소에 빠져 죽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얼마 전까지도 이 노파를 모신 당이 노고소 옆에 있었다고 하며, ‘노구소’, ‘노호소’라고도 한다.

4. 변암(弁岩)

위치 및 유래

강림면 부곡리에 있는데 운곡 원천석 선생이 은둔생활을 하였다고 전하는 굴바위이다. 부곡리 치악산 기슭 비로봉 정상에서 동남쪽으로 300m쯤 아래에 있는데 생긴 모습이 고깔처럼 생겼다고 하여 ‘변암(弁岩)’이라 불린다. 바위 아래에는 수십명이 앉을 수 있을 만큼 넓고, 그 옆에는 돌우물이 있어 사시사철 물이 끊이지 않는다. 원천석 선생은 이곳에 온돌을 만들고 고사리와 나무 열매로 식사를 대신하였다고 전해진다. 변암 안쪽 벽면에는



▲ 고깔모양의 변암



▲ 변암 측면의 석각

‘변암(弁岩)’이란 두 글자가 새겨져 있고, 그 옆으로는 ‘太宗_○東二十里’라는 문구가 있다. 또 바깥 벽면에는 ‘開穿石井常_○湯 收拾山蔬且慰貧’이라는 시구(詩句)가 있고, 옆쪽 바위 아래면에도 ‘耘谷元先生諱天錫麗末隱居此山下我太宗以甘盤舊恩累召不至幸其盧先生避入于此崇禎後八十年癸卯後孫尙中識不_○上高其義’라고 새겨져 있다.

5. 국형사 동악단(東岳壇)

위치 및 유래



◀ 너전으로 불에 탄 동악단

동악제단은 현재 원주시 행구동 국형사(98번지) 근처에 자리해 있다. 동악단에는 조선 정종(定宗) 때 공주의 신병을 치료하기 위해 이곳에서 100일 기도를 드려 동악산 신령의 가호에 의해 완치되었다는 전설이 있다.

건물은 근년에 신축한 것으로 토단만이 남아있던 곳에 동악단을 지었지만 2001년 7월 너전으로 불에 탄 이후 10월부터 복원작업에 들어갔다.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의 맞배 집으로 좌우에는 방풍판(防風板)이 있고, 주변을 돌담으로 에워싸서 신단의 분위기를 자아낸다. 동악단에 얽힌 전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선 정종의 둘째 딸 희희공주가 병을 얻어 백약이 효험이 없게 되자 이곳 보문암에 와서 낭응대사(郎應大師)의 지극한 간호를 받으며 100일 기도를 하니 동악산 신령의 힘을 얻어 완치하여 환궁하였다 한다. 이에 정종은 보문암을 크게 증축하여 국형사라 부르게 하였다고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왕명으로 이곳에 동악단을 쌓게 한 연후에 봄·가을을 택하여 호국대제(護國大祭)를 봉행하게 하였다고 한다.

참 고 문 헌

허균, 『사찰장식 그 빛나는 상징의 세계』, 돌베개, 2000.

한정갑, 『재미있는 사찰이야기』, 여래, 2002.

원주시, 『원주시사』, 2000.

차용걸, 노병식, 박중균, 『중원문화연구총서 제5책 : 원주 영월산성 해미산성 지표조사보고서』, 1998.

Web site 자료

원주시청 : wonju.go.kr

횡성군청 : hsg.go.kr

원주문화원 : wjmunwha.or.kr

소초면사무소 : socho.wonju.go.kr

행구동사무소 : haenggu.wonju.go.kr

판부면사무소 : panbu.wonju.go.kr

신림면사무소 : silim.wonju.go.kr

강림면사무소 : kanglim.or.kr